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날로 패역해 가는 이 세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심으로 힘쓰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46호 2011년 8월 13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오순절 지각변동... 개인과 사회 복음 동시 포용

CT, 사회 정의 구현으로 돌아선 오순절교회의 현주소와 그 원인 소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강조하는 펜타코스탈 교회에 지각 변동이 왔다. 한마디로, 펜타코스탈 교인들은 더 이상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공화 사역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교회에서 펜타코스탈 교회는 주류교단과 달리 신학적 정통성을 인정받은 적자는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펜성령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이상스럽게(?) 여겨지는 부류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현재 주류교단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주류교단에 비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색 인종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을 정도이다.

내적 체계를 중시하고 역동적인 예배를 중시하는 펜타코스탈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 체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사회 정의의 운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공동체 내부만의 종교 경험이 아닌 교회공동체 밖에서 새로운 희망과 정의를 갈망하는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봉사 사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티비튜데이(CT)는 이러한 펜타코스탈 교회의 지각 변동이 바로 미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각성이라고 진단하면서, 성령을 통한 임재와 감동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위한 각성과 실제적인 프로그램들로 다가가 전인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보도한다 (A New Kind of Pentecostal: Its' no longer just about raising a hand to God. It's also about reaching out a hand to the needy).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단이 사회정의 구현으로 선회하고 있다.

현재 오순절 계통의 교회란 19세기 미국에서 창립된 후, 세계 도처로 퍼져나간 일단의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교회들을 가리키며, 모든 기독교인들이 회심한 후에 성령세례라고 불리우는 신앙적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을 말한다.

특히 1906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를 중심으로 한 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1970년 당시에는 1천2백만 정도로 성장했다가, 현재는 지구촌 전역에 6억 명 정도의 오순절 교인들이 있을 정도로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북미적인 상황에서 현재 오순절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1) 교인들이 함께하는 대중예배에서의 방언사용의 급격한 감소
 - 2) 오순절 신학에서의 종말론의 신선한 발전
 - 3) 공화 사역이나 사회적 문제들에 폭 넓은 참여 증가
- 처지온더웨이(Church On the Way)교회로 잘 알려진 잭 해이포드(J. Hayford) 목사는 미국교회에서 오순절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이다. 그는 북미 오순절 교회들이 사회정의라는 교회 밖의 문제로 선회하게 될 배경에 대해 "오늘날 미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영적 각성"이라고 진단하면서, 특히 30대 미만의 오순절 교인들이 부처 공화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해준다.

그런데 그는 "오순절 교회가 이처럼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즉 1920년대 미전역에 불어 닥친 "대공황" 시기에도, 오순절교회 부흥사였던 맥퍼슨(A S McPherson) 목사의 "동정과 공화 사역"이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대공황을 맞은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맥퍼슨의 사역에서 희망을 얻었고, 이로 인해 1950년대까지 동 사역을 지속했다.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는 로스앤젤레스의 앤젤레스교회(the Angelus Temple)이다.

북미 오순절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사회적 문제"나 "사회정의"에 관계된 용어나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바로 주류교회나 월터

라운제부위의 "사회적 복음"을 표용한다면 오순절 교회의 생명인 영적 차원을 상실하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사회적 복음을 강조한다면 구원의 메시지와 성령의 선물들과 같은 귀중한 가치들이 잠식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촌에 산재된 오순절 교회들은 더 이상 그러한 염려나 기우에 빠지지 않는다. 브라질, 칠레, 그리고 남미 여러 국가들에서는 오순절 교회들이 교육이나 농업 개혁에 속속들이 참여하고 있어, 신학적으로도 오순절교회의 사회 참여를 다룬 논문이나 감행물들이 출간되고 있는 실정이다.

(3면으로 계속)

광복 66주년... 8.15해방은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

신앙선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올해로 대한민국은 광복 66주년을 맞았다. 광복절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패하고 항복함으로써 한반도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은 문자 그대로는 "빛을 되찾음"을 의미하고 국권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쓰인다. 또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민족해방 기념일로 부른다.

광복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도처에 살아있다.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작게는 내 나라를 구하려는 독립운동가들의 목숨 건 신앙과 일제 치하의 교회들이 당면한 압박 등 신앙의 선배들의 나라사랑 이야기는 즐비하다. 더욱이 광복 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대통령 이승만 장로가 이끄는 초대내각은 기독교 색채가 짙었다.

광복 66주년을 맞아 LA 지역에서 나라사랑 관련단체에 오랫동안 사역해온 최학량 목사(새창조교회 원로)의 글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한편 지난 2003년 이후에는 우익단체인 뉴라이트에 의해서 현재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의 변경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미 1919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 정부가 수립돼 건국됐다가 1948년 정식정부를 수립한 것인데,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년으로 본다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편집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 광복 66주년 기념 -

최학량 목사(LA한미친선연합회 회장)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언제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로, 자유 민주주의로 통일되어 '삼천리강산'이 된 애국가로 바로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하곤 한다.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영어로 rose of sharon이라고 한다. 아가서 2장 1절의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라고 기록되어 있다. 원어에는 "바차렐"이란 이름으로 나오는 꽃을 우리 성경에는 "수선화(Daffodil)로 영어 성경에는 "Rose of sharon"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 영어명을 우리말로 쓰자면 "무궁화로 쓸 수 있는 단어다. 우연의 일치일까. 무궁화라는 꽃말이 우리 민족성을 표현해주니 반갑기도 하다.

(3면으로 계속)



2면

경기침체, '경제 회심'이 근본적 해결책



7면

예장 합동 '기도한국 2011' 설교 송용걸 목사(신천교회 담임)



13면

인터뷰 김옥란 선교사(KAPC 세계선교회 파송선교사)



16면

인터뷰 김영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총장)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학교 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학교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1년 가을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1) 원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1년 9월 2일(금) 오후 6시
- 3) 입 학 시 험 : 2011년 9월 10일(토) 오전 11시, 면접 :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1년 9월 12일(월) - 9월 14일(수) 오후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 감 / 교 부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 (718)463-7047

동부개혁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1980년 3월 불란서 파리의 부르세 병원에 한 세기를 떠돌 썩하게 하던 존경받는 한 지식인이 폐수종 때문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문자 그대로 발악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통을 치고 질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가를 곁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묻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글

로써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자유라는 이름에 수많은 수필을 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 세기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잔 폴 사르트르입니다. 이것이 그의 말로입니다. 1980년 4월 18일 입원한지 한 달 만에 그는 병원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어떤 사람이 신문에 이러한 투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과 죽음 후에 평가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의 삶의 마지막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역사에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와는 다른 모습의 죽음을 맞은 한 위대한 생을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였던 하용조 목사님이 65세의 나이로 평생을 사모하며 섬기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국에 내노라하는 정치인들, 셀 수 없이 많은 연예인들,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그의 시신 앞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일본인 목회자는 일본에서 급하게 방문하여 하용조 목사님이 못 다한 일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감사의 말과 조의를 표했습니다. 다 같은 작은 관에 누여 땅에 묻히는 삶이 이렇게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일까요?

하 목사님은 복음의 불타는 열정으로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온누리교회를 세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전통의 틀을 벗어 버리고 문화와 예술의 도구를 사용하여 방황하는 사회의 각 계층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자신은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던 고인은 전 세계에 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섬겼습니다. 간 이식 수술, 당뇨병, 계속되는 투석으로 자신은 움직이는 병환이라고 말했던 고인은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은 오히려 강렬해졌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날에도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며 소망과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나누었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새겨봅시다. "바쁘다는 것과 피곤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바빠도 좋아하는 것을 할 땐 신이 나지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할 땐 바쁘지 않더라도 피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쁘지만 즐겁고 재미있고 흥분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사십시오" 성경은 바울의 입을 통해 고인의 삶을 증거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딤후 4:7-8).

경기침체, '경제 회심'이 근본적 해결책

리더십저널, 짐 월리스의 공공선을 위한 가치 선택과 소그룹 운동 소개

세계 최강대국이던 선진국인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절되고, 겨우 "디폴트" 상태만을 피할 정도의 금융 위기로 시작된 경제 불황이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2009년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가 바로 도덕 위기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 대한 우상숭배가 어떻게 우리를 몰락으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왜 도덕적 각성과 공공선에 대한 새로운 헌신이 필요한가를 말한다.

아직도 월가에서 터지기 시작한 금융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이전처럼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들을 회복하고 시민 사회가 깨어나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소저너"지 발행인인 짐 월리스는 신앙인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함께 행동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역설한다. 즉 예언자적 목소리로 '경제의 회심'을 촉구한다.

미국발 경제 위기 직후 열린 2009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자리였다. CNN은 유명 기업인들을 찾아가 날마다 이렇게 인터뷰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까요?" 그러나 짐 월리스는 이 질문을 "이 위기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치 토크'를 이끌고 중대한 반향을 얻어낸다.

이제 '예전 모습 그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탐욕은 선하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나는 그것을 지금 원한다"는 말들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오래된 그러나 가장 좋은 가치들을 새롭게 발견해야 할 때다. "그만하면

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 소그룹 차원에서 함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이 있다.

일정과 예산은 도덕적 문서다.
예산을 보면 그 가정이나 소그룹, 교회, 시, 주, 국가에 무엇이 그리고 누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일정 역시 도덕적 문서이다. 일정은 우리가 우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며 예산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실천하기: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삶의 우선순위를 기록한 목록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시간과 돈을



는 것이다.
-실천하기: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나눠본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당분간 그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함께 해본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나 돈을 삶의 우선순위에 투자하거나 신뢰하는 기관에 기부해본다.

봉사하는 삶을 살라
해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무렵에는 무료 급식소와 노숙자 쉼터

먼저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문화,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캐나다의 소리를 듣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실천하기: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열정이나 헌신에 있어 모범이 되는 단체를 후원한다.

결국 몇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 사람들이 함

도덕적 각성과 가치 재발견으로 균형 잡아야 소그룹에서 실천 선택...변화는 역사를 바꿔

충분하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실제적인 덕목들은 다음과 같다:

-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빚을 내서 사는 것은 경제와 가정 모두에 독이 된다.

- 이웃을 따라잡으려 애쓰는 대신 이웃이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볼 때다.

- 광고에서 말하는 가치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은 가치다.

-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 건강한 사회는 시장과 정부, 시민 사회가 각각 제 역할을 하는 균형 잡힌 사회다.

- 우리가 나누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충분하다는 사고들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짐 월리스의 지적처럼 우리는 올바른 질문, "이 위기는 우리를 어떻

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눠본다.

스크린을 보는 시간 vs. 가족과 보내는 시간

스크린 덕분에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지만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텔레비전이나 게임기 앞에서 보내는 시간과, 책을 읽거나 바깥에 나가 놀거나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실천하기: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더 잘 보내기 위한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본다.

단순한 삶은 축복이다.
가지고 있지 않은 돈으로 필요 없는 것을 사는 대신 우리는 단순한 삶이 축복임을 기억해야 한다. 단순함은 삶의 풍성함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

에 자원봉사자들과 기부 물품이 넘쳐난다. 그러나 봉사가 연례행사나 기념일에만 하는 활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실천하기: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관을 찾아 1년 동안 꾸준히 자원 봉사를 해본다.

캐나다의 소리를 들으라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가장

게 다른 선택을 할 때 변화는 커져만 간다.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아지면 변화는 하나의 운동이 되는데, 역사를 바꾼 것은 이런 운동이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소그룹 차원에서 이런 선택을 실천해보시기를 바란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선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의 힘을 믿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3-0200(대 프) (323)665-0009(광고국)
Fax(213)380-5951(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프)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프)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2011 Fall Semester
신·편입생 모집
가을학기 : 2011년 8월22일~12월2일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Athletic Mission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Christian Leadership
--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원격 교육 강의 :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혹은 J-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파트타임 교육전도사 청빙

지원자격
청소년 선교에 열정이 있으며 신학 공부를 한 분
영어로 설교와 회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교회 홈페이지 사이트를 참조
http://www.kumcabq.com/YouthDirector/JobDescription.pdf

제출서류
이력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목사나 교수 추천서 1부
평신도 추천서 1부

제출방법
Attention : Pastor Kee Cheon Kim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마감: 2011년 8월 31일

문의 : 김기천 목사 TEL. 505-803-7716, abqkee@gmail.com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기사제보와
문서선보
후원을
받습니다.**

**45개국에
복음을
신고
나갑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오순절 지각변동... 개인과 사회 복음 동시 포용

(1면에서 계속)

따라서 이러한 오순절교회의 사회 참여 경향을 담은 책(Global Pentecostalism: The New Face of Christian Social Engagement)에서, 밀러(D. E. Miller)와 야마모리(T. Yamamori) 공저자는 "진보적 오순절교인들"(Progressive Pentecostals)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령에 의하여 변화된 크리스천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의 영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와 필요를 통전적으로 찾아주는 크리스천"이 바로 진보적 오순절교인들인 것이다. 밀러와 야마모리는 1980년부터 오순절이나 은사주의적 크리스천들이 2조3억 달러를 들여, 100개국에서 2천5백만 명에게 필요한 재화와 복음을 전달해주고 있다고 말한다.

지구촌에서 오순절 교인들이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사역에 가속도를 내는 것에 반해, 북미 오순절 교인들은 한 번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한 적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성회에서 1958년 시작된 십대들의 마약회복 프로그램인 "틴챌렌지"(TeenChallengeusa.com)는 현재 미국에만 233개의 센터들과 82개국에 1,100센터들이 있을 정도로, 가장 오래되면서도 가장 큰 마약재활 프로그램으로 성공을 거뒀다. 동 프로그램의 재할 프로그램 중 핵심은 바로 변화(개종)를 위한 기도와 성령세례이다. 한마디로, 오순절 교회의 특성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오래된 오순절 교회의 사회선교 단체는 "라틴 아메리칸 차일드케어"(Latin American Childcare, lacc4hope.org)이다. 1963년에 시작된 이 단체는 라틴아메리카

와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복음주의적 학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21개 남미국가들의 100,000명의 아이들에게 말과 행동의 복음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실제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위기 상황들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들을 교육하고 의료보험과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하여 잘 자랄 수 있도록 공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교육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해 삶을 살아가는 기술과 지혜들



을 배워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도 오순절 교회들은 사회적 정의를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the Los Angeles-based Dream Center Movement, Convey of Hope, ConveyofHope.org).

그렇다면 결론으로, 어떠한 점들이 북미 오순절 교회들이 사회적 정의에 관심과 열정을 갖도록 만들었는가를 살펴보자.

1. 지구촌 기독교의 주역 변동
밀러와 야마모리는 오순절주의를 "기독교

교의 무게 중심을 개발도상국에 이동시킨 중요하고도 새로운 사회적 운동"이라고 정의한다. 주로 오순절교회들은 폭력과 부패 정치 그리고 빈곤 국가들에서 성장을 이뤘다. 개발도상국가들에서는 선교사들을 보낸 미국교회보다 오순절 교회가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교회로 자리 잡고 있다.

2. 인구통계학적 요소

백인 중심의 오순절 교회들의 성장세는 멈춘 반면 유색 인종들에 의한 오순절 교회들은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다. 특히 히스패닉의 경우 21세기가 저물 무렵이면, 북미 오순절교회들의 주인은 히스패닉계로 예상될 정도로, 시골에 사는 백인들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사는 유색인종들 중심으로 성장에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3. 오순절 신학의 발전

독일 튜빙겐대학 명예교수이며 성령론의 대가 워르겐 몰트만 교수는 "신학적으로 오순절 운동은 성년기에 접어들었다"며, 지난 20년 동안 오순절 신학이 이제는 다른 신학적 전통이나 경향과 버금갈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최근에 들어와서 오순절 교회들은 종말론 특히 이사야서 61장에 반영된 누가복음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을 강조하고 있다.

4. 세대 변화에 따른 지명 확대

전통적으로 나이 든 오순절 교인들은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구원 즉 하나님과 개인이라는 영역에서 신앙을 구축했다. 그러나 30대 전후반의 젊은 오순절 교인들은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한마디로 구원과 변화, 언약과 커뮤니티, 공의와 정의를 품고 있어 빌리 그레함과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동시에 다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무궁화로 돌아가 보자. 높이는 2-3m 정도. 꽃송이의 크기는 5-7cm. 6월부터 11월까지 100일 동안 피고진다. 한 개의 꽃송이는 아침에 활짝 피고 저녁에는 오후 3시경 3일간 피었다가 떨어진다. 보통 한 그루에 2-3000송이가 피고 진다. 우리 민족의 특성이 그대로 스며있어 더욱 국화로 돋보이며 사랑을 받는다.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사론의 꽃으로 불리운다.

"우리" 그렇다. 내 어머니, 내 동생을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공동의식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정신이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광복 66년이 지난 아직도 붉은 사탄의 세력이 미수복 지역 북한(북한은 헌법상으로 국가가 아님)에 한에 맺힌 내 동포가 있다. 적화통일의 아욕을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 이 통일이 핵폭탄과 비교조차 할 수없는 복음의 폭발력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내 조국 대한민국의 힘을 합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더 나아가 조국통일을 앞당겨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를 목청껏 부르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을 알지도 못했던 조상들이 태극이란 도안을 연구해 천지창조의 원리가 되는 의미 깊은 음양 조화로 표현해 냈다. 태극기의 구도적 내용은 중앙의 태극과 4괘를 표기하여 창조의 근본 원리와 생동의 조화를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국기란 나라의 얼굴이요 민족의 정기와 주권을 상징한다. 모든 국민과 더불어 생사를 같이하는 영광의 상징이다. 나는 한국인이요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태극기가 통일성이 없이 각각각색으로 그려져 왔으나 해방을 맞이하고 정부수립 후 (1948년) 이듬해 1949년 3월 25일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재임 초기에 현재의 태극기를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는 태극기를 볼 때마다 조국을 가슴속 깊이 그려보며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강력한 애국심을 다짐하고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린다.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없으면 한민족으로서의 자각 상실자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든지 한국인이니 틀림없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요, 한국인임을 명심하고 국위를 위하고 한민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면에서 계속)

무궁화의 꽃말은 섬세한 아름다움, 한 마음의 뜻, 영원무궁, 일편단심의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금수강산, 참 아름답고 섬세하다. 어디를 가나 명승지다. 주님 주신 자연동산의 아름다움은 찬양과 감사가 절로 나온다. 이 아름다운 강산을 일제 36년 동안 빼앗기고 짓밟혔다. 원통한 비극의 쇠사슬을 66년 전 풀어주셨다. 8.15해방은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일에 틀림없다. 독립운동에 뛰어든 선조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

조국은 과거 긴긴 역사상 931번이나 침략을 당했으나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 일이 없었다. 신기한 나라다. 언제나 역사의 한 복판에서 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결코 잊을 수 없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언제나 똘똘하다. 단일민족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 중국은 50개 이상의 복잡한 민족과 언어가 뒤엉켜 있다. 구소련(러시아)은 13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다. 외적의 침공에도 결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영원무궁을 향하여 은근과 끈기로 발전해왔다.

우리 태극기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천지창조의 성경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안을 바라보면서...

56편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키우시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저 예수 잘 믿어서 잘 사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때부터가 새사람으로서의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시험들을 통하여 옛 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또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것이 나의 생애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작품입니다.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만큼 아버지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이 남습니다.

시편에서는 주로 다윗이라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고 베풀어주시나 하는 것입니다. 흥해를 통과하고 그 험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은혜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깨에 메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즐기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목자가 되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실 때는 나 자신으로서의 전혀 내 앞길을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주시고 저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진정으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수하게 하신 약속이,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환경에서 나오는 어려움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입에 담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는 용기와 감사와 즐거움이 솟아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림자도, 가시도 없습니다. 오직 아들을 향한 뜨거운 거룩한 사랑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힘, 나를 향한 뜻, 모든 것들이 아버지 마음 안에 다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모든 격정과 사건들이 다 아버지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지배하시는 세상에 아들로서 삽니다.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길들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와 닮은 자로 키우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때, 내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 기억이 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영적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다를 볼 때 걸음으로 보면 수면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물고기와 여러 가지 자원으로 가득 차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보면 잠잠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그 아들까지도 주신 뜨거운 사랑,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위한 모든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창고, 이 모두가 나를 향하여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지으신 세상, 허락하신 세상,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담임목사님을 모십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평양노회 소속 평안교회는 영감있는 복음적 말씀선포와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평안교회 비전을 계승발전시킬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자격

- (1) 연령: 만 40-55세
- (2) 학력: 정규신학대학 또는 일반대학 졸업 후 총신신학대학원 (M.Div.) 이상 학위소지자

2. 제출서류

- (1) 1차 서류
 - 지원서(최근 3개월 이내 명함판사진 1매 포함) 1부
 - 설교 CD 1개
- (2) 2차 서류 (1차 심사 후 개별통지 받은 분에 한함)
 - 학위증명서 각 1부
 - 본인 및 사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건강진단서 (사모 포함하여 최근 3개월 이내 검진)
 -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 증명서, 자격증, 출판물 등

3. 서류제출 기한 및 제출처

- (1) 2011년 9월 23일(금) 오후 5시
- (2) (우) 100-130 서울시 중구 순화동 6-9
평안교회 담임목사청빙위원회
(02-776-1854, 755-7103, admin@epapc.org)

4. 기타

- (1) 지원서는 교회홈페이지 (www.epapc.org)에서 다운받아 사용함
- (2)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만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3) 결과는 개별 통지함

대한예수교 평안교회 임시대회장 유종목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옛날이 더 좋았습니다

오늘날은 마켓마다 냉장고마다 식탁마다 맛있는 음식이 차고 넘치지 만 다른 반찬이 없어 찬밥에 물 말아

고추장을 찍어먹던 그 시절이 그래도 더 행복했습니다. 냉장고는 상상도 못했던 시절, 시어 꼬부라진 열부

김치에 콩보리밥을 비벼먹어도 참기름 한 방울에 감격했던 그 때가 그래도 더 좋았습니다.

핵가족으로 가족이 많이 나누어졌고, 남아있는 식구들조차 세 식구이면 저녁을 세 번 차려야 하는 요즘보다 대가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한 밥상에 둘러앉아 먹던 그 시절, 가족 사이에 흐른 정도 더 깊었고 웃음도 더 많았습니다.

무릎마다 엉덩이마다 여기 저기 기운 옷을 입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았던 시절, 몇 번이고 헝겊을 덧붙여 꿰매고 또 꿰매어서 두툼해진 양말도 없어서 못 신던 시절, 자가용은 커녕 자전거도 없던 시절, 뒤끝이 달아서 헐거워진 고무신을 신고 다녀도 신이 났던 그 시절이 더 좋았습니다.

긴 겨울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면 너무 추워 고무신 안에 시린 발을 웅크리고 달달 떨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양지 바른 담에 기대앉아 햇볕을 쬐면 몸은 나른해지고 마음은 너무 편안해집니다. 점심시간에 소사 아저씨가 전쟁 구호물자로 찌서 나누어주던 옥수수 빵은 지금도 그 맛이 허겁에 남아 땀 돌 만큼 환상적이었습니다.

봄이 오도록 겨울 내내 반찬은 오직 김치였습니다. 김치는 김치 국, 김치 밥, 김치찌개, 김치전으로 모습을 바꾸어 밥상에 올라왔고 그 때마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산나물, 들나물류 겨우 보리 고개를 넘기던 부모님들의 시름은 한결 덜어졌습니다. 푸성귀와 햇보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

니다. 온통 사방 개구리 소리로 시끄러워지는 여름이 오면 어른들은 농사일로 더 바빠지고 아이들은 방학에 신이 납니다. 방학 속에는 뒤로 하고 들로 산으로 냇가로 정신없이 뛰어 놀다. 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농사짓는 집 아이들도 해가 지면 신이 납니다. 함께 다방구, 술래잡기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뚝뚝 떨어집니다. 밤이 되어도 가지지 않는 더위에 잠들지 못하고 밖에 나오면 별빛이 쏟아집니다. 밤새 모기에 뜯기며 서리해운 털 익은 수박, 참외를 맛있게 먹으며 떠들며 여름밤은 깊어져 갑니다. 별뿔뿔을 세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눅12:15). 우리의 행

복은 환경이나 물질의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궁극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때때로 고난이 닥쳐도 자녀의 삶을 언제나 해피엔딩(happy ending)으로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지금 그 행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고 계신가요?



푸/ 른/ 초/ 장

이기홍 목사

(사우스베이션교회 원로목사)



8월은 광복절 66주년을 맞는 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해방을 맞이하여 큰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드린 시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해방의 기쁨입니다(1-3).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심으로 해방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일제 36년간의 속박에서 해방 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대사입니다. 둘째,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기도입니다(4). 지금도 포로 중에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이 해방을 받기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셋째, 역경에서의 확신입니다(5-6).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는 확신입니다.

첫째, 해방의 기쁨입니다(1-3).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1).

큰 기쁨이 있을 때 "꿈인가"라고 표현 합니다. 지난 포로 생활에서 너무나 고생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것 같이 일제의 속박에서 나라를 잃고 억울함을 당하다가 갑

자기 해방을 맞게 되니 꿈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2).

포로 중에는 웃음이 사라진 것 같이 36년간의 일제 속박 중에는 웃음이 없었는데 해방이 되어 자유가 있으니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지금도 독재 하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웃음이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3. 혀에는 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2).

해방을 얻게 되니 자연히 혀에서는 노래가 있게 됩니다. 속박에서는 한숨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혀에서는 즐거운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을 받은 일, 한국이 일제 36년간의 속박에서 해방을 받은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대

사입니다. 대한민국 66년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1)해방을 얻고 1948년 8월15일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하여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2)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 위기 중에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3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3)1950년 8월16일 낙동강의 반격으로 북한군을 물리쳤습니다. 4)1950년9월15일에 맥아더 장군의 지휘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9월28일에 수도 서울을 회복하였습니다. 5)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이 이뤄졌습니다.

6)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그리고 온 국민들을 통하여 6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7)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 선교사를 2만여 명 파송하는 나라(세계2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둘째 속박 중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기도입니다(4).

은 주민들이 자유와 평등이 없으며 경제가 어려워 굶주리고 있으며, 신앙의 자유가 없어 기독교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며, 정치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이 고생하며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하여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2)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에서 속박되어 어두움의 세상에서 해매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셋째, 역경 중에 하나의 확신입니다(5-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부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심” 시편 126편 1-6절

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1)씨를 뿌릴 때는 힘들고 울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처음에는 고생을 하고 힘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직업을 15번 바꾸며 씨를 뿌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여 10년 동안에 10번 교회를 옮긴 일도 있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노력하면 때가 되면 단을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공하여 기쁨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농부는 봄, 여름은 고생하지만 가을에는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고생 끝에 성공한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신호범 위원(위싱턴주 상원의원-2선), 임용근 의원(오레곤주 상원의원-2선), 김장준 의원(연방하의원-3선), 정호영 의원(가든그러브 시의원, 부시장), 강영우 박사(부시 정부 장애인위원회 차관보), 전진선 차관(연방노동부 차관), 노날드 문 판사(하와이주 대법원장), 마샤 최 여사(위싱턴 주 무역장관) 등입니다.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시 독일은 전쟁에 실패하여 온 국민들이 실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시장은 폐쇄되었고 온 국민은 굶주리며 절망했습니다.

이 때 700년 된 독일교회에서 성도들이 700주년을 맞는 주일에 다 같이 모여 "7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절망 중에 온 성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기념예배에 3만 명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일으키고 공장을 일으키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청소년들은 새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온 성도들은 새로운 신앙 운동을 일으켜 독일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국, 영국, 독일 3대국이 세계 대국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향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물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참회의 초대, 참회기도, 목회기도, 헌금기도, 위탁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대예배 설교를 위한 예화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 자료
- 수요일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일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행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파워포인트 종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자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T) 자료

-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물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 매월 제공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은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부설(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예화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8월은 무슬림들이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라마단 금식기간이다. 지금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운동이 여러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Dr. Robert Morey의 저서 Islamic Invasion에서 현재 "이슬람은 50개국의 나라들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힘이고, 그중의 40여국에서는 이제 무슬림이 87%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전세계에 걸친 무슬림의 숫자는 경악할 정도로 증가되었다. 지금 유럽은 그야말로 "무슬림이 몰려온다"라고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 전세계의 무슬림 인구가 가톨릭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발표되었다. 교황청이 발간하는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신문은 2006년 교황청연감을 인용, 전 세계 65억 인구 가운데

슬람의 모스크에 참석하는 무슬림의 숫자가 정기적으로 영국 성공회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수를 뛰어넘었다. 정부와 학술단체의 통계를 기준한 것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이상 모스크에 출석하는 무슬림의 수가 93만명이지만, 성공회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의 수는 91만6천명으로 집계되었다. 무슬림이 숫자적으로 영국 교회를 뛰어 넘었다. 영국의 트렌드는 유럽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더 텔리그래프지의 아드리언 마이클스는 2009년도 보고서에서 이러한 무슬림들이 몰려오는 것을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였다. 1998년도의 스페인의 인구 중 외국태생은 3.2%였는데 2007년도에는 13.4%나 되었다고 했다. 유럽의 무슬림 인구도 지난 30년

를 가두면서 반기독교적인 이슬람을 선택했다. 한 이슬람 대표에 의하면 이들은 2080년까지 전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목표로 유럽의 전진기지로 영국을, 아시아의 전진기지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 하려고 포교하고 있다. 한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이미 한국 땅에는 한국이 세계로 보낸 모든 선교사들을 다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1만3천 이상의 이슬람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이슬람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는 지배전략을 가지고 있다. 선교전문가들은 이들의 전략을 3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다와"라고 하는 포교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도록 노력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미국 같은 선진국은 문화적 교류라는 측면에서 학교에까지 들어가서 포교하고, 또한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에서는 학교를 세워주고 교육을 지원한다. 이슬람후원 교육기관들을 이슬람의 선교본부로 삼고 합법적으로 마음 놓고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별히 지난 20년간의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대한 초등교육에 대한 투자

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둘째는 이 기독교와 무슬림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참으로 많다. 하지만 몇 가지만 나열해 보면 1)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무슬림들은 코란을 믿는다. 2)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다. 3)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믿는데,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무슬림의 알라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믿는데, 무슬림은 알라에게 사랑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5)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데, 무슬림은 알라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생각한다. 6)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남을 믿는데, 무슬림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7)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무슬림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다. 그래서 5가지 기둥으로 불리우는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 5가지 기둥은 (1)신앙고백(알라는 유일신이고 무하메드는 그 선지자) (2) 하루 5번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요즘 교회들 가운데서는 여러 성령집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말세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쿠카몽가에서 김 장로

A: 먼저 말세가 언제부터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세는 구약의 요엘이 말한 대로 예수님 초림, 즉 신약시대 시작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여 승천하신 1세기 때는 사실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 같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교회에 성령의 소나비를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교회가 탄생하고 출발해 되었습니다. 풀러신학교의 교회성장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박사는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세 가지 물결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1)제1의 물결은 "정통적인 오순절 운동"으로 영어로는 classical Pentecostalism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세기 초에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1906년도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윌리엄 조셉 세이모어 라는 흑인 목사에 의해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특징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강한 회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설교에서 3가지 강조점을 두었는데 (1)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2)종말에 영적 추수를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신다. 지금은 바로 그 때라면서 한 집에서 모여 성령님을 사모하며 열

성령의 인격 역사 능력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것

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3)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주로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 다. 비판하기 위해 취재로 왔던 기자도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방언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받은 증거로 방언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성령운동을 통해 생긴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미국 하나님의성회나 한국의 순복음교회가 이 계열에 속합니다.

2)성령의 제2물결은 1960년대부터 가톨릭교회 등에서부터 시작된 은사운동인데 이것을 신오순절 운동(Neo-pentecostalism)이라고 부릅니다. 이 운동은 자기가 속한 기존교단을 탈피하지 않으면서 초교파적으로 오순절 운동의 특징인 "방언이나 신유 등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3)성령운동의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는 1980년대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방언과 같은 체험이나 오순절주의의 독특한 교리를 강조하지 않으면서 교단에 관계없이 "성령님의 인격과 역사와 능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예배에서 따르는 표적으로 병자가 고침받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3의 물결은 세계 그리스도인의 절반이 교파를 초월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하고 이 성령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세 교회의 성령운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비는 보물비가 아니라 열대지방의 스프링처럼 억수같이 내리는 비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추수를 위해 주시는 성령님의 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마음 문을 열고 환영하고 모셔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세 교회의 성령운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추수 전에 오는 비입니다.

무슬림들이 몰려온다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해천 목사



무슬림이 19%인 반면, 가톨릭교인이 17.4%라고 보도했다. 기독교를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산하지 않고 본다면 이슬람교는 세계 최대의 종교인 셈이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무슬림이 15억이다.

한때 북음으로 꽃피웠던 유럽의 변화는 최고의 위기상황이다. 프랑스의 무슬림은 지난 10년간 2배로 급증했다. 또한 20살 미만의 아이들 중 30%가 무슬림이다. 베니스, 마르세유, 파리와 같은 더 큰 도시들에서는 이 숫자가 40-50%까지 증가한다. 2005년도의 유럽의 인구 성장의 85%는 이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많은 비율이 이슬람권으로부터 온다. 전통적으로 가장 교회가 많았던 남부 프랑스에서도 교회보다는 모스크(회교 사원)들이 더 많다.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2001년 영국 센서스에 의하면 160만이었었는데 이제는 250만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1962년도에 런던에 단 1개의 회교사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644개가 넘는다. 이 대부분이 폐허된 교회를 사들여서 모스크로 바꾼 것이다. 또한 지난 1월의 발표에 의하면 영국에서 이

간 2배로 증가했다. 2009년도의 자료는 브뤼셀에서의 태어난 남자들의 이름의 7번째까지는 모두 아랍식 이름이었다. 네델란드에서 태어나는 남자 이름의 1위는 무하메드이다. 그녀는 또 다른 기사에서 2008년 현재 무슬림은 유럽인구의 5%지만, 2050년도에는 20%가 될 것이라고 보도 인용했다. 하지만 다른 예측들은 이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미국에도 "무슬림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내 무슬림들은 1970년도에는 10만명이었다. 지금은 6백만명이다. 몇 년 전에 24개의 이슬람 단체가 시카고에 모여서 전략회의를 가졌는데 공언하기를 "30년 안에 5천만명의 무슬림이 미국에 살게 될 것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다. 무슬림들의 66%는 미국이 무슬림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들은 기독교 나라인 미국의 이슬람화를 위해서 투쟁할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 이슬람교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슬람교는 7세기부터 14세기의 전성기 이후에 서구의 식민정책으로 힘을 잃었다. 그런데 식민지에서 독

슬람화 전략은 지하드라고 불리는 성전(聖戰)이다. 일부 무슬림들은 평화를 주장하지만 결국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무력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코란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911의 사건이나 각종의 테러가 이슬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을 정당화 한다. 세 번째의 이슬람화 전략은 모스크의 설립을 통해 전 세계에 전략적 선교기지 구축한다. 오일머니로 모스크 건립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오일머니의 1/5이상이 모스크 건립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지난 50년 간 이슬람교는 200% 넘게 성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을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있고, 관심 밖에 있다. 이슬람은 기독교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와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성경을 반대한다. 한 중동권 선교사가 이슬람은 사단의 걸작품이라고 한 그 표현대로 이슬람을 알면 알수록 더 수긍하게 된다.

의 기도 (3)수입의 2.5%를 통해 구제 (4)라마단 금식기도 (5)메카순례, 그리고 최근의 (6)지하드라고 불리우는 폭력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9)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폭력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믿는데, 무슬림들은 종교적 폭력은 무하메드의 가르침을 이루는 길로 믿는다.

하지만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있다. 무슬림들이 주님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슬람 세계와 선교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Islam Watch 보도에 의하면 감사를 일들이 많다. 작년엔 러시아에서 2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돌아왔다. 프랑스에서는 1만명이, 터키에서는 3만5천명이, 인도에서는 만명이 개종했다. 수단에서는 5백만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슬람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놓칠 리가 없다. 한 사우디의 회교성직자는 "매일 1만6천명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한다. 매해 6백만명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했다. 분명한 것인 무슬림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5면으로 계속)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

전액장학생 선발공고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이중언어 전액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상자: 석사, 박사 00 명
자 격: 1. 이중언어(한국어,영어)자로 토플 iBT 88~89 이상인 자
2. 최종학교성적이 3.7 이상인 자
3. 중생의 체험이 있고 소명이 있는 자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의 강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위	프로그램	학점
석사	B.A.B.S.	128
석사	M.Div	96
박사	D.Min	42

입학문의전화
213.481.1313
신학대학 교무과
김은의 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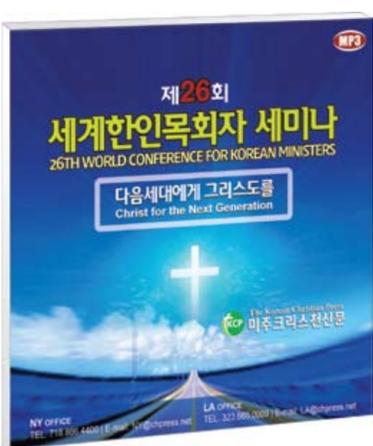
쉐퍼드대학교는 ATS 외원학교입니다.

쉐퍼드대학교

info@shepherduniversity.edu
www.shepherduniversity.edu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 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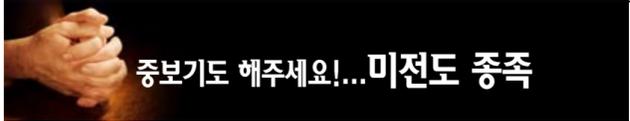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7강의(목회자, 평신도 각각)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도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석, 박재호, 황의영, 여운세, 송용걸, 이영선, 김만형, 김상덕, 조일구, 홍민기, 송규식, 김해천, 박현남, 김승연, 장영춘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메그하르 빌(MEGHWAR BHIL)



메그하르 빌 족은 전통적으로 힌두카스트 제도 (UNTOUCHABLE)로 간주된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로 분리됐을 때 많은 수의 카스트 힌두교인들은 파키스탄 지역을 떠났다. 그러나 메그하르 빌족 같은 소수의 지장카스트(불가촉천민의 공식호칭)

힌두교인들은 파키스탄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 비록 파키스탄 내 소수 힌두종족 일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형제 힌두인에게 멸시받는 것보다 무슬림들에게 멸시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 슬라게토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된 후에도 무슬림들과 힌두교도 메그하르인 사이의 오래된 적대감은 감소되지 않았다. 메그하르인은 편협주의 남쪽 다두(Dadu)시와 나와브사(Nawabshah)의 북동 지역에 산다. 메그하르 빌족의 언어는 인도-아리안 어족의 일부이며, 빌(Bhil) 언어

의 아그룹(LB-Group)에 속한다. 메그하르 빌의 언어는 구어이지만 가끔씩 신문에 쓰여지기도 한다.

삶의 모습

힌두사회에서 브라만(Brahman)은 카스트제도의 가장 높은 계급이나 반면 메그하르 빌들은 농업노동자, 가난한 소작농으로 분류되는 가장 낮은 지장카스트 계급이다. 메그하르인들은 대부분 농사꾼으로서 시골에서 살며, 여분의 수입을 벌기 위해 시골을 따라 농작물을 따러서 이주한다. 밀과 기장은 이들의 주요 식용작물이며 쌀, 목화, 옥수수도 생산한다. 농부들은 건조한 땅을 관개해야 하므로 문송의 비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편잡의 인더스강과 동쪽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5개 지류는 그 땅을 관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메그하르인의 결혼은 개인보다는 가정의 결합을 더 중요시 여긴다. 대부분의 결혼은 사회적 지위와 카스트제도를 고려하여 중매결혼으로 이루어진다. 시골 지방에서 신혼부부는 남편의 가족과 가까이 살거나 같이 산다.

메그하르 여성들은 길고 빨간 패티코트 치마 때문에 원거리에서도 쉽게 구별된다. 마을 어른들은 전통적인 의상을 입으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젊은 여성들은 다른 여성처럼 파키스탄 사람들의 전형적인 옷, 넓은 바지(샤와르)와 긴 상의(까미즈)로 바꾸어 입는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1992년 파키스탄 인 지주자빌(Bhil)인을 노예로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됐지만 봉건제도의 힘은 법률위배보다 더 강력해졌다고 한다. UN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 Commission Of United Nation)는 계속해서

시골지방에서 숨겨져 있는 하리스(Haris)와 노예들을 찾아내려 하고 있다. 지주에게 진 부채 때문에 메그하르인들이 비밀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 있기도 한다. 파키스탄 지주들은 그들의 행동을 '소작인과 지주의 협력'이라고 말하면서 정당화시키고 있다.

신앙

대부분의 메그하르인은 힌두교인들이다. 이들은 무생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정령숭배신앙을 반영하는 의식을 행한다. 죽은 사람들을 위한 위령의식을 한다. 밀가루로 공 모양의 희생제물을 만든다. 만일 까마귀가 반죽완자를 먹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 보고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의 반죽완자에는 어떠한 동물이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필요한 것들 1900년대 초기에는 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가 양육되지 못했으며, 현재에는 메그하르 기독교인은 손으로 짠 옷을 만류받았다. 소수의 선교사들이 메그하르인들 중에서 일하고 있으나, 보다 헌신된 기독교인 일꾼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만일 메그하르인들에게 빨리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10년 이내에 무슬림이 될 것이라고 한다. 강력한 근본주의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에 관용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것은 힌두교도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미묘한 압력은 그들의 종교를 버리게 하거나 개종시킬 것이다. 성경의 일부와 예수영화가 메그하르 언어로 번역돼 있으나 기독교방송은 아직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교회부흥 이끌던 '우먼파워', 예전만 못해

많은 미국 가정에서 여성이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해 왔던 전통이 점차 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인 바나그룹은 지난 20여년간 이뤄진 미국의 영적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무엇보다 이 기간 여성들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에 주목했다. 미국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신앙적이고, 영적이라는 통념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니게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 여성들은 20여년 전보다 교회 활동에 덜 참여하며, 성경도 덜 읽으며, 신앙에도 의미를 덜 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전통적 시각에서도 보다 멀어지고 있고 사단에 대해서도 그 실재를 덜 신뢰하며 단지 약함의 상징 정도로만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반면 보고서는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은 같은 기간 급격한 영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이끈 조지 바나 대표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재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더 이상 교회의 주된 일들에 대한 지지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불황 경험한 미국교회들, 헌금 늘어도 지출 안 늘려

미국 대부분의 교회에 헌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경제난에 대비해 예산을 재편성하고 있다고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밝혔다. 지난 5월 1천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 따르면 71%의 목회자들이 2011년 헌금으로 교회에 필요한 재정이 충당되거나(41%) 초과했다(25%)고 답했다. 그러나 지출에 있어서 교회들은



여전히 예산을 동결하고 있다. 라이프웨이 디렉터 스티브 맥코넬은 "교회의 소비 방식에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표준이 생겼다"며 "교회들은 아직도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응답한 목회자 중 22%만이 2010년보다 2011년 헌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39%는 헌금이 증가했으며, 36%는 2010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참여한 교회들은 작년에 비해 헌금이 평균 2%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맥코넬은 "현금이 경제 상황에도 좋고 나쁜 징조들이 있듯이, 교회 재정 건강 상태에서도 동일한 양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교회는 매일 변화를 겪고 있지만, 몇 년 전 경제 침체는 교회에 큰 타격이었고, 대비하기 어려웠던 변화였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헌금액이 증가한 몇몇 교회에서 예산을 늘리지 않고 있다. 맥코넬은 "직원 봉급을 상충시키지 않는 교회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 교회는 건축이나 다른 큰 자금이 들어가는 일을 지연시킨다. 고용 계획도 미루고, 때로는 직원 봉급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교회에서는 봉사자 수를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의 봉사자 수가 2009년 41%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49%로 증가했으며, 커뮤니티 봉사자 수 또한 2009년 44%인 것에 비해 50%로 증가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바깥에서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대신, 교회 구성원들을 통해 교회 안에서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고 있다. 맥코넬은 "그들은 밖으로 돈을 지불하기보다, 그들 안에서 자원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땀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9%에 달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더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조사는 교회의 규모에 따라 헌금액의 증가에 격차가 있음을 나타냈다. 더 많은 출석자가 있는 교회의 헌금액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100명에서 249명이 출석하는 교회의 거의 절반(49%)이 2010년 대비 헌금 증가를 경험했다. 25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47%의 교회가 증가를 경험했다. 반면, 50명에서 99명이 출석하는 교회 중 34%, 49명 이하가 출석하는 교회 중 23%가 헌금 증가를 보고했다.

수정교회의 진짜 문제, '돈' 이 아닌 '리더십'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인 수정교회가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흥망을 치르고 있다. 먼저 창립자인 로버트 H. 솔러 목사가 2006년 은퇴하며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줬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몇 년 뒤 솔러 목사 부자(父子)가 불화를 겪어 결국 아들이 교회를 사직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리고 솔러 목사의 딸이 담임이 되어 사위도 요직에 앉게 됐고, 최근 미국 교회의 산 역사이자 자존심과 같은 그 교회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런 재정난의 원인은 새 리더십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로버트 솔러 목사가 담임직에서 은퇴한 후 성도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가 진행하던 능력의시간 방송 시청률이 떨어지며 헌금도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정교회는 부활절과 성탄절마다 초대형 행사를 개최하며 부채를 쌓아갔다. 현재 750만불에 달하는 부채는 대부분은 로버트 솔러 목사의 딸이 담임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모기지도 4천만불 정도의 부채가 별도로 또 있다.

최근에는 로버트 솔러 목사가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빼앗겨 명예직에만 앉게 됐다. 당시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들은 모두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가 무급 인사들이 이사회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사회는 솔러 목사의 딸과 사위를 포함해 모두 유급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로버트 솔러 목사와 함께 초창기에 교회를 섬겨온 원로 교인들은 "솔러 목사가 쌓은 것들을 자녀들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가족 관계에 있거나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는 이들이 없는, '교회로부터 진정으로 독립된 이사회'를 원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들은 "교회가 싸움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파산과 정체성 변질 문제를 돌보라"고 말했다. 현재 수정교회는 지난해 10월 파산 신청 후, 4천6백만불에 예매당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LA시의회, 만장일치로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LA 시의회가 12명 만장일치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했다. 이 법안은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부부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인정하는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에 따라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부부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 혜택도 금지해 왔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캘리포니아도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결혼보호법의 결혼에 대한 정의 중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법적 결합"이라는 구절과 "배우자는 상대방과 다른 성별을 지닌 사람"이란 구절을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결혼할 상대방이 이성이건 동성이건 상관 없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몇 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미국 의회는 1996년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동성 커플에 대한 연방법상의 혜택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뉴욕,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버몬트, 아이오와, 워싱턴DC 등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그 후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은 여전히 연금·건강보험 등에 있어서 연방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예수 초상화 발견' 진위 논란 중

[미선라이프] 미국의 한 교회에서 예수의 초상화(사진)가 도난된 지 150년 만에 발견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이 초상화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얼굴을 닦는 데 사용한 땀 수건에 남은 그의 화상(畫像)을 그린 것으로 교황 레오 13세의 추종자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텔레그래프는 "이 초상화의 존재는 최근 캘리 폼이라는 여성이 미국 테네시 주(州) 메디슨빌에 있는 한 교회에 이것을 팔려다 그림의 중요성을 알아차린 교회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드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폼리는 프로스티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의 트레일러 주택에서 이 그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림 소유자인 프로스티는 15여년 전에 이 기독교 유물을 누군가로부터 사들였다 고만 주장했다고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하지만 초상화의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실제 보고 싶다" "증거가 있느냐" "예수님의 초상화라면 얼마나 좋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65Revival.com

365Revival.com

귀하고 귀한 교회예산- 단 1불이라도 아껴드립니다

지역의 암초, 불량을- 단 1%이내로 줄여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의 양날개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을 떠받쳐 드립니다

갠트리 새생명교회, 나성 복부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남가주 웨슬리교회,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달라스 한인 장로교회, 매홀장로교회, 동부 사랑의교회, 동문교회, 드림교회, 로고스 장로교회, 만나교회, 폰트레이 베델한국교회, 미주 평안교회, 베델 한국교회, 베버리 장로교회, 브리자교회, 샌디에고 아름다운교회, 성림한국교회, 세계성도교회, 세계로교회, 시애틀 형제교회, 시온연합감리교회, 아버지마음교회, 아름다운교회, 열방인 침례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예수교회, 은혜평강교회, 은혜한국교회, 인랜드교회, 주님이함께하는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텍사스 한인장로교회, 필라델피아교회,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하버 성산교회, BIOLA UNIVERSITY, CROWN FINANCIAL MINISTRY, CONCORD UNIVERSITY, FAITHANDWORKLIFE.ORG CALVARY CHURCH, SADDLE BACK CHURCH, KINGDOM BUSINESS ADVISOR GROUP, REVIVALATWORK.COM, R@W. BUSINESS AS MISSION, FMnC, ITMC, PGM, ENJOY&TV, HKM, SILK WAVE MISSION, ThatsMEonTV.com, KBS, MBC 등 항상 성원해주신 많은 교회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365Revival.com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최저가격, 최고품질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에 든든한 날개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불량을 0%를 지향하는 정품만을 공급합니다



불량을 1%미만의 Philips로부터 Pro Disc, Ritek, Verbatim, Falcon, 불량률 0.05%미만의 Taiyo Uden, Optical Quantum까지 세계 최고 브랜드의 정품 CD-R, DVD-R, DVD-RW를 중간마진 없는 **출세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Philips 공CD-R: 13.60c부터)
- Blank, Inkjet Printable, Pre-printed타입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공급
- 24시간 무료배송: 남가주 전역(\$450이상 주문시)
- 미 전역 신속배송: UPS, USPS Ground Service(타주 주문시 면세)

Special CD/DVD 제작 서비스
특별집회/부흥회/행사/시리즈 설교 등을 원본만 보내 주시면 편집, 제작, 복제, 포지 디자인에서 패키지까지 헐리웃 수준의 판매용 품질로 제작해드립니다.

중소형교회를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

혼자서 CD/DVD 복제는 물론 라벨 인쇄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Epson 디스크 프로듀서가 설교, 찬양 CD는 물론, 특별DVD까지 수량에 관계없이 교회의 모든 디스크복제와 라벨인쇄를 책임집니다. **단가 \$2.695(회원 특별할인가: 전화 문의)**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받으면서 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푸짐한 할인혜택과 특별선물을 확인하세요.

예산절감 & 인력절감, 일당백 만능 해결사- **EPSON 디스크 프로듀서**
- All-in-One: 자동CD/DVD Duplicator & Label Printer
- 봉사자가 부족한 교회에 안성맞춤
- 자유로운 수량조절로 5-400장의 디스크 복제에 적격
- 빠른 속도: Label Print 시 60-70장/hr, Label Print & CD Dup 시 40-45장/hr
- 효율적 개별 링크 절약기능으로 낮은 유지비 및 운영비
- 원터치로 100장까지 무인 자동 CD/DVD복제 및 라벨인쇄
- 간단한 작동법과 다양한 템플릿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

미 전역을 커버하는 Epson의 A/S망
미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Epson의 Nationwide A/S Network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nline진단/상담 및 무료 부품수리/교환 서비스
- 1 year warranty: Extended care plan available
Epson America, Inc.
3840 Kilroy Airport Way Long Beach, CA 90806
discproducer.epson.com

최상품질의 모든 Media Supply 완벽 구비
Labels, Sleeves(Paper, Color, Clear Plastic)
CD/DVD Cases, Mailers, Envelopes, Inserts, Hubs

Revival 멤버십 실시: 모든 미디어 및 스피커 구입시 3% 할인

빠르고 저렴한 CD/DVD Duplicators
경쟁가격 중 가장 빠른속도, 가장 낮은 오류율 및 고정물의 ILY Enterprise 제품
- 캘리포니아 현지생산
- 확실한 품질보증
- 신속한 A/S 및 회장의 조건

실교CD/DVD/Duplicator & Media supplies
365Revival.com
FAITH & WORKS Media Corporation
OC/SD/BAY 1221 E. Dyer Road Suite 290, Santa Ana, CA 92705
LA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INLAND 20635 Valley Blvd. Bldg. A. Walnut, CA 91789
24시간 직통: 213-985-3088 / 949-742-2600



예장 합동 '기도한국 2011' 설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단 136개 노회 11, 353개 교회 삼백 만 성도들의 1%, 오늘 3만여 명 기도특공대가 '기도한국 2011'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교단의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단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니면 왜 나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한민족,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실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집회를 준비하는 실무진이 제게 설교해야 한다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냐고 했더니 앞에는 감사, 뒤에는 비전에 대한 설교가 있으니 회개 말하라고 하는데 제게 들려오는 소리는 "회개 말하라"에서 "말"이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회개하라"고 "너 회개하라"고 들려왔습니다. "너, 회개하라"는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1회를 다녔고, 평안교회에서 김윤찬, 이성택 목사님을 모시고 부교역자로 섬기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30년 열심히 목회하고 잠실에 있는 신천교회의 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대 초에 개척하여 목회하던 캘리포니아 옐로스카운티 가까운 곳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윤 목사님이 하도 속상해서 교인들에게 강하게 감정까지 섞어 힘차게 소리높여 "회개하라" 외쳤는데, 앉아 있던 김 장로가 더 큰 소리로 "나나 회개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둘 다 회개하지 않고 둘 다 교회를 떠나니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소리치지 않고 제 심장 한 복판에 제 손에 쥔 회개의 칼을 꽂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주전 600년경 유다나라 여호아김 정권 때입니다. 범민족적인 죄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숭배가 가득차고 음란과 전정으로 인한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가뭄의 재앙이 나라를 덮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한줄기의 비도, 한 방울의 이슬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멈추시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들끓은 말라버렸고, 땅바닥은 짙 짙 갈라지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입은 벼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종들을 보

내서 물을 길어오라고 했지만, 빈 그릇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해 갈증을 느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자리에 모였습니까? 교단의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단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니면 왜 나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한민족,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실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고 발람의 종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축복, 사랑, 은혜, 부요를 외치고는 돈 몇 푼 받고, 이거 세어보고 있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가 받았던 불의의 삯입니다. 며칠전 이명박 대통령이 이 나라의 부패를 탄핵했습니다. 삼성의 이견희 회장이 삼성그룹에 부정부패가 퍼져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교단에는 부정부패가 없습니까?
스스로 교단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간식당식 설교 속에 유머나 섞어 몇 마디하며 성도들을 희롱하고는 거머비, 회의비, 사례비, 몇 푼 쥐고 식당으로 우루루 몰려가 농담이나 지껄이며 게걸스럽게 먹고

학대받는 자 신음하는 자, 고아, 과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시하였습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고 생명 걸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총회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교단은 지난 3년 동안 4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만 천게 넘는 교회가 4년에 4만명이니, 한 교회가 1년에 한 명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외식하는 예배자처럼 소리만 요란하고 흥내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에 편승해서 서로 한자리 하겠다고 서로 이기겠다고 박터지도 싸우며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각자의 눈에서 흐르는 회개의 눈물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와 내 교단을 살리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살리는 강수가 되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처녀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정말 멋진 청년과 선을 보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양가 부모가 만족하며 멋진 커플,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되는 줄 알았는데, 그만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더니, 처녀가 눈물을 펄펄 흘리며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남자는 꿈에도 보고 싶지 않다"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내 엄마를 무시하고 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민족이 무시를 당하고 우리 기독교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얻어맞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욕을 먹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속이 쓰리고 아

어떤 사람이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이 미끄러져 해변에 설치된 물집승 잡는 족쇄 뒷에 발 한쪽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발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고 하면 할수록 더 조여왔습니다. 밀물은 들어오고, 그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길이 없어, 죄수처럼 쓰러져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한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미 발은 몸부림으로 상하고 찢겨 있었습니다. 이 족쇄를 풀 수 있도록 대장장이를 불러달라고 애원했고, 대장장이가 와서 가져온 연장으로 족쇄를 끊으려 해도 풀 수 없었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그는 최후 결심을 했습니다. 외과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외과 의사가 왔을 때 이미 밀물이 목까지 차올라 족쇄 걸린 발을 찾아 자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 서 바닷물 속에 잠겨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족쇄를 풀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 뿌리 깊은 족쇄를 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죄악이 많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그대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처럼 회개의 도끼로 죄의 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 회개가 사라진 우리의 냉랭한 심령에 회개의 불,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불이 불을 낳고,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시간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 민족을 사랑하는 불! 교단과 내 교회를 사랑하는 불을 가지고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의 불쏘시개가 됩시다.

지금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여 달라!
지금 나에게 회개의 불을 붙여 달라!
기도의 불을 붙여달라!

내 영혼이 기도 속으로 끌려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시간 망신당해야 되요. 그래야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양 옆 사람 불붙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범했습니다!" "내가 타락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됐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 합시다.

제목: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본문: 예레미야 14장 7-9절)

송용걸 목사 (신천교회 담임)



나라는 육신의 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국 삼천리 남북한 이 땅에 물이 없습니다. 이 땅이 가뭄에 매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지적에 있는 북한 땅에는 지금도 수많은 고아와 장애인들이 죽 한 그릇에 하루의 생명을 걸고 있고 재래식 화장실에는 회충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남한 땅 대한민국의 온종일 먹고 마시고도 부족해 밤새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는데 그 속에는 음란과 매춘의 애벌레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저 하와이 홀라춤 추는 무녀들이 입은 것처럼 자꾸 울려 입다보니 어린 중학생들조차도 따라하고, 남자들은 음탕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크리스천들은 이미 죽은 두터지오, 파산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전국방방곡곡 구석구석에 러브호텔, 러브모델, 러브팬션이 짝 들어차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놀라서 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모든 거리가 낮에는 교만과 사치와 부정부패로 밤에는 마귀와 술과 음란과 저주로 철철 흘러넘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반발 지껄이로 공갈, 협박, 음모, 술수를 일삼는 한, 먹을 것이나 찾아다니는 생쥐입니다. 여기에 편승해 바퀴벌레 같은 종교 모리배들이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다 삼켜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부흥에만! 숫자놀음에만! 재정에만! 눈독을 들이다보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경건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는 관심이 없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별 재주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고 구경꾼들의 박수소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교회 땅 몇 평, 그까짓 허수인 숫자놀음, 어중이떠중이 장로 권사 대량생산, 돈 하나 보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영광으로만 교회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혐오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증오하십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드는데 피가 묻어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건물에 고급승용차는 목사를 거만하게 만들었고, 낡고 찌든 몇 평짜리 공방이 낱새나는 지하에배당에 털털거리는 봉고차는 목사를 불평하다가 비굴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교만, 질투, 탐욕, 정욕, 편당 감투에 눈이 어두워 이 사회에

북한의 지하성도들은 남한의 성도들이 밟고 들어가는 교회마당의 흙 한 줌만 갖다 주면 그 흙 품고 순교하겠다고 합니다. 남한의 성도들이 드나드는 성전문의 손때를 손수건에 묻혀다주면 그것만세 한번 밟아보고 죽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울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심각한 재앙으로 고통 받는 조국을 위해 참회의 눈물을 강물처럼 흘렸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면 자기 연민, 슬픔에서 나온 장탄식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입술로만 하지 맙시다. 부서진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애痛으로 해야 합니다.

"온 머리가 다 물이었다면,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겠나이다. 빈 들, 광야 같은 허리 짤린 이 땅! 슬프다 내 조국 대한민국이여! 지금 부정부패의 영이!, 교만과 방종의 영이!, 무질서와 타락의 영이!, 음란과 퇴폐의 영이!, 자살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나이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살리고, 매마른 빈들 광야가 샘이 터져 오아시스가 된 것은 오직 하갈의 눈에서 흐르는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입니다. 속이 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장 할 일이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인에게 산기가 있고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낳지 않으면 아이도 죽고, 임신부도 죽습니다. 지금 아이를 낳게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내 가정도 내교회도 내 교단도 내 민족도 삽니다.

라헬의 찢어지는 듯한 울부짖음이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들려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벗어야 합니다.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관중아요. 그래서 회개를 낳아야 합니다. 구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더러운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입니다. 입술로 하지 맙시다.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굳어버린 땅을 쓸 수 있게 하려면 쪼개 부셔 트리고 뒤집어야 합니다. 나를 깨뜨리고 뒤집어야 합니다. 내가 깨어져야 세상이 깨어 집니다. 우리가 울면 교단이 울고 우리가 회개하면 교단이 회개하고 이 민족이 돌아옵니다. 시간이 없습시다. 지금입니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전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에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할렐루야백화점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로 바꾸시렵니까? 교회 단체 구입시 한국 특가세일합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보급처
성서보급회
(할렐루야백화점부설)

멀티프로젝터

Product	LIST	HM PRICE
2300 ANSI LUMENS 2000:1	\$1,095.00	\$699.99
2600 ANSI LUMENS 2200:1	\$1,295.00	\$899.99
3000 ANSI LUMENS 2000:1	\$1,795.00	\$1,199.99
3300 ANSI LUMENS 600:1	\$3,195.00	\$2,399.99
5200 ANSI LUMENS 1200:1	\$6,995.00	\$5,299.00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여름성경학교 수건, 컵, 쟁반, 펜등의 교회판촉물 전문업체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학,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묵회와 신학, 성경/전집,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음악

세로니온 음반, 베스트 셀러, 극대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예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서 기운, 성가대 기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악 선물용품, 시상/영상, 예배용품, 카드, 기타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젝터 샤프트 2600 ANSI LUMENS **밝기 2200:1**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DLP-XGA 특가 \$835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박사, 풀업가운, 성가대, 은금위원, 드레스,정장양복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하드수정강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온 강대상 헬라만의 독특한 디자인

최저가격 보장
성구집회 최초 50마이크로 획득! 한국디자인 전문업체로부터 Good Design 미크로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장남용업체 선정
이름이 자유로운 바퀴(360도 회전) 승락(700W 110V) 상단형에 유광처리 - 선풍기 시범보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사파몰
www.gospe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 762-0011/Fax. (718) 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음향, 영상, 조명 (213) 447-4011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카운, 달력, 다이어리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45.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2)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체 속에 생명체가 운명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와 유사한 방법으로 담아두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람은 영어 알파벳 26가지를 선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결하여 많은 문장을 만들어 책을 이루게 하고, 여러 권의 책을 모아 한 질을 만든다.

이와 유사하게 생명체들도 생명체의 알파벳(DNA) 4가지(A, T, C, G)를 선별적이고 반복적으로 연결하여 문장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만들고, 책 한 권에 해당하는 염색체를 이루고, 책 한 질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염색체들의 총합인 게놈(genome)을 이룬다. 부전자전(父傳子傳)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유사하게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이 정보 시스템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성경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증거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수준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먼저 생체 정보 구조는 사람의 체계와는 달리 이중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그 구조를 이중 나선형 구조라고 부른다. 정보를 이루는 기본 물질인 DNA(생명체의 알파벳)가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으로 마치 줄사다리처럼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사람이 만든 책에서는 정보가 한 줄로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몇 글자나 한 줄이 지워지면 그 정보는 영원히 잃어버릴 염려가 있지만 생명체의 경우에는 정보 구조가 두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닥의 정보에 문제가 있거나 지워져도 다른 쪽에 있는 정보 덕분에 완전한 정보를 곧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네 가지 DNA 중 A는 언제나 T와, G는 언제나 C와 짝을 맺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 생명체들은 각각의 세포마다 이 이중구조의 정보를 2개씩 쌍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실한 방법으로 정보를 보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잘 만드셨는지를 볼 수 있다.

지난 해 미디어들은 2010년 5월 20일자 사이언스 익스프레스를 토대로 "합성 세포 창조" 혹

은 "살아있는 세포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실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과학자들이 한편으로는 아주 간단한 박테리아의 100만 개의 DNA를 가진 유전정보 전체(게놈 genome)를 인공적으로 합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전정보만을 제거한 다른 박테리아에 집어넣어 그 생명체가 번식을 하고 살아가게 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기법을 사용한 기술의 발전일 뿐이지 전혀 새로운 발견도, 생명을 창조한 것도, 진화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100만 개가 약간 넘는 DNA를 사람이 합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기존생명체 도움 없으면 게놈 합성은 불가능...생명창조와 무관 100명이 10년 걸려 성공한 작업, 박테리아들은 30분만에 끝내



the son of Enosh,
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하나님과 사람의 정보 구조

적으로는 약 1000개 길이의 DNA 조각들만을 합성했을 뿐이다. 더구나 그 조각도 완벽한 이중나선 구조의 DNA가 아니라 한 줄로 된 DNA 조각들이다. 그 한 줄을 두 줄로 만든 것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가 한 것이다.

그들은 반인공적으로 합성된 이 1000개 길이의 DNA 조각들을 또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인 효모에 집어넣어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거듭하여 DNA 100만 개가 연결된 게놈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100만 개의 DNA를 가진 덩어리의 유전정보는 결국 효모와 다른 생명체가 만든 것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100만 개의 DNA를 가진 게놈 합성은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이 작업에 4천만 달러의 비용과 20명이 넘는

박사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인력까지 합한다면 1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되어 10여 년 걸려 겨우 성공한 작업이다. 그런데 박테리아들은 DNA 전체(게놈)를 복사하고 세포 전체를 새로 만드는 전 과정을 단 30분 만에 끝내버린다!

현재 사람은 100만 개가 넘는 길이의 DNA를 직접 합성할 기술이 없다. 더구나 앞에 소개한 연구 업적은 원소에서부터 시작해서 DNA로 된 생명체의 정보를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가장 간단한 박테리아 유전정보를 사람이 복제하는 일도 아직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사람 세포는 DNA 수가 백만 개가 아니라 3,000배나 많은 30억 개나 된다.

또, DNA 자체는 절대로 생명이 아니다. DNA 정보를 읽고 해독을 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생체 내의 기계들(단백질들)과 수천 가지의 보조 단백질들과 다른 생체 물질들이 없다면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화학 물질일 뿐이다.

그 과학자들은 DNA와 동일하게 중요한 정보 해독에 필요한 수십 가지의 단백질과 수천 가지의 보조 물질들은 단 한 개도 만들지 않았다. 이 단백질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일은 이중 나선구조의 DNA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다. DNA는 한 줄의 이중 나선이지만 기능이 있는 단백질은 3차원 구조까지 요구할 뿐 아니라 거기에 지질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당류가 부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기술은 생명 창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만 창조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더 자세하게 드러낸 것일 뿐이다.

진정한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위에 소개한 연구 결과를 MSNBC는 이런 문장으로 기사를 마치고 있다. "우리는 원하는 어떤 (유전) 정보든지 쓸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써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체 정보를 복제하는 하지만 생명체가 필요한 어떤 새로운 기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진정한 창조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진정한 무엇인가를 창조해 본 일이 없기 때문

이다. 성경은 오래 전에 이미 이렇게 선언했다.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나니..."(전1:9).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완벽한 기능들을 각 종류에 맞게 말씀으로 한 순간에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셨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시다.

그 처음 사랑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도 잘 드러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창세기 1장에 6번이나 나온다. 자기의 형상 곧 자녀들이 살 지구를 맨 처음에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the Earth)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그 지구를 꾸며 가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좋았더라'는 말씀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창조자의 형상을 위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한 창조물인 자기의 형상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노라고 알려주고 있다.

신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살 펴리게 감격적인 표현으로 기록하였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눅3:38). 할렐루야!!!
(다음호에 계속)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저지복음증장로교회)

마음속의 땅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1, 32).

내가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곧이 들리지않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 서로가 기쁘고 소중히 여겨지던 마음은 사라지고 자신의 벌거벗은 그 모습이 부끄럽고, 상대방도 서로 소중하지도 기쁘지도 않고 상대방이 한 일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우습게만 보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고 꼬리를 무는 생각을 따라가며 깊어질수록 '내 탓이야'가 깊어져 원망의 굴이 폭폭 파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곧두박질치게 됩니다.

부끄러운 수치심이 마음을 운전하는 대로 따라가면 수치심이 죄책감으로, 구차한 변명으로, 책임전가의 변명이 책임회피로 원망의 대로를 뚫고 마음 안에 땅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마음의 병든 땅굴 안에서 자기 기대의 잣대로 모두를 바라보니 모두가 못마땅하고 그 어느 누구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말씀보다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깨진 거울들을 바라보며 못났다고 실망하고 비관하고 힘들어하나 그런 지옥의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새겨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못나지 않았다고 반대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실망된 마음을 회복하여 떨어진 자존심을 세우려고 자기 식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자기식의 생존 방식을 우리는 성격이라 부릅니다.

마음은 마치 정밀한 기계의 회로와 같이 작동합니다.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면 감정이 반응을 하고 반응한 회로에 따라 의지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 작동의 키를 눌러 실천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행사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등 잘못된 믿음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면 죽음의 상태가 임하고 살리는 믿음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면 생명의 상태가 임합니다.

마음은 인간을 다스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라가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나 잘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차 없이 심판의 칼날을 휘둘러는 비정한 심판자로 혹은 잘하던 말든 상관하지 않는 무심한 존재라든가 기분 내키는 대로 과위를 행사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등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창조주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선택하여 신뢰하면 지옥 같은 삶에 빛이 들어옵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뒤돌어진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왔을 때 벌거벗은 상태가 부끄러운 수치감으로 덮여오던 병든 자존감이 오히려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를 보기에 심히 좋다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자녀로 기뻐하시는 그 기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자존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길만큼 내 안에 병든 인생관, 가치관 등의 변화가 일어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환경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됨이 인생 최대의 영광입니다.

세기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웅철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주일 저녁 예배 : 오후 7:00 수요기도회 : 오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6:00 (월-토) Tel: (410) 337-9448, 882-0181, Fax: 337-9446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성섭 주일 1부 예배 :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삼일기도회 : 오후 8:00(수) 새벽기도회 : 오전 6:00 주일학교 : 오후 11:00 Tel: (704) 841-0821, Fax: (704) 841-1625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p>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 유 주일영양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금요기도회 : 오후 7:00 Tel: (303) 422-6950, Fax: (303) 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주일 1부예배 :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8:00 금요기도회 : 오후 8:00 매일 새벽기도회 :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3260 Morris Rd., Levittown,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종운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한국어) 주일 2부예배 : 오전 10:15(영어)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한국어) 수요찬양예배 :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 엘 교회 담임목사 :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국어) :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국어) :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국어) : 오전 9:30 주일 4부예배(한국어) : 오후 1:45 EM 예배 : 오전 11:30 수요 예배 : 오후 8: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Fax: (410) 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 금요기도회 : 오후 8:00 대형 청년부 : 오후 11:30 청소년부 : 오후 11:30 유치, 영유아부 : 오전 10:00 Tel: (508) 435-4579, Fax: (508) 435-5467 2 Main St., Hopkinton, MA 01748</p>
<p>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 이영섭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 오후 12:50 Tel: (410) 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 정용교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 오후 7:00 Tel: (360) 456-0191 6007 Pacific Ave., West,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주일영양예배 :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 오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토요일 : 오전 6:30 www.kppcseattle.org Tel: (206) 527-0981 / Fax: (206) 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p>	<p>알칸사 제자들 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 오전 4:00 수요 예배 : 오후 7:30 수요 찬양 : 오후 8:00 새벽 예배 : 오전 6:00 (월-토) Tel: (501) 920-9049 / 사택: (501) 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p>	<p>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주일 1부예배 :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삼일기도회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2:00 수요 찬양 :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얼린문교회 담임목사 : 하태수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 오후 7:30 Tel: 교회(915) 755-1490, 사택(915) 751-4385 3416 Altam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용걸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2:00 수요 예배 : 오후 2:30 수요 찬양 : 오후 8:00 금요기도회 : 오후 8:00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 김성환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 오후 8:00 Tel: (254) 634-8705, (254) 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영어) 수요 예배 : 오후 8:00 금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예배 :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 941-4447, Fax: (703) 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 예수 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7:00 목요 찬양 : 저녁 8:00 www.jkcc.org Tel: (804) 560-7500, Fax: (804) 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큰루터교회 담임목사 : 나광삼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7:00 새벽 예배 :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 새벽기도회(금, 토, 주일) Tel: (410) 203-0516, Fax: (410) 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 정태근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수요 찬양 : 오후 7:00 수요 예배 : 오후 7:30 새벽예배 :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 9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 임규영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수요기도회 : 오전 11:30(한국어) 주일 4부예배 : 오후 2:00(영어) Tel: (253) 535-6207, 531-9424 Fax: (253) 535-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수명 www.hawailchurch.org 1부 영어예배 :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금요기도회 :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토) Tel: (253) 536-6675, Fax: (253) 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 윤정용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 오후 2:00(본문예배)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z.com Tel: (480) 726-0191, Fax: (480) 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선만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2:00 수요 예배 :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 643-4738, Fax: (860) 647-058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하와이지역 담임목사 : 이남수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수요기도회 :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 (월-토) Tel: (808) 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장현 주일영양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토) Tel: (808) 739-1004, Cell: (808) 219-4592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 김순관 주일예배 : 오전 11:00 주일학교 : 오전 11:00 수요 예배 :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토) Tel: (808) 277-2936/557-1778/542-2922 1331 S. Beretania St., Hon., HI 96814</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 오후 7:00 수요 예배 : 오후 7:00 금요기도회 : 오후 9:00 Tel: (808) 947-5252, Fax: (808) 947-5151 www.hawail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한기총과 미기총이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기총과 MOU 체결... 이단 등 공동대처

2일 미주한기총 송정명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

미국 내 50개주의 4,000여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미기총)가 지난 2일 평안교회에서 제 13대 송정명 대표회장 취임예배를 갖고 세상을 향한 더욱 활발한 섬김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미기총 기를 앞세우고 임원들과 순서 담당자들의 입장으로 시작된 예배는 총무 박용덕 목사의 사회, 공동회장 임형태 목사의 기도, 서기 유영일 목사의 성경봉독, 미주평안교회 성가대의 찬양 순으로 진행됐으며, 증경 대표회장 한기형 목사가 '지금은 지도자를 세울 때입니다'(행 9:26-3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송정명 대표회장은 취임인사에서 "과거 이민사회의 중심점은 교회였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

들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다. 정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영적으로 열악해졌다. 이런 시기에 우리 한인들을 통해 타락해가고 있는 미국과 교계에 올바른 복음적 목소리를 내어서서 영적 회복과 복된 나라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미기총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정명 회장에게 취임패와 축하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상임회장 전영현 목사가 임원 및 분과위원장을 발표했다. 이어 직전 회장에 대한 공로패를, 신임임원들에게 추대패를 전달했다.

또 한기총 공동회장인 홍재철 목사, 남가주교협 회장 민종기 목사,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이 축사를, 박희민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대

표회장)가 격려사를, 차현희 목사(웨슬리언교회 대표)가 축도를 했다.

특히 이날 취임사에서 미기총과 한기총은 교계, 사회, 세계적 이슈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협력 합의서(MOU)를 체결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주제로

제2회 ReNEW, 8월 23-26일 Regis College

뉴잉글랜드와 미주지역의 영적 재부흥을 위해 2010년 첫 대회를 가졌던 ReNEW(Revive the New England Wave) 집회가 오는 8월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보스턴 근교 웨스턴웨스턴에 위치한 Regis College에서 2011년 대회를 개최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황형택 박한석 허천희 권지현 목사, 권순영 박사, 김명화 교수, 이현주 소장, 송솔 나루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매사추세츠와 인근 뉴잉글랜드 지방은 제1, 2차 영적 대각성의 무대가 됐던 곳이다. 특별히 17세기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있었던 '건초더미 기도운동'(Haystack Prayer Meeting)과 이후 이어진 학생선교운동(SVM: Student Volunteers Movement)은 현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은 곳이다. 특별히 한국의 선교를 위해 헌신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과 같은 선교사들 역시 이 학생선교운동 중에 무디 등의 영향을 받아,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나라인 한국 선교에 헌신하는 결단을 하기도 했다.

서로를 한국과 미국의 대표 기독교 기관으로 인정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이단문제나 동성애 문제 등에도 공동대처하기로 하고 상호 강단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박준호 기자)

위대한 세계 부흥의 역사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 건조터미에 모였던 다섯 학생의 기도 운동에 시작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ReNEW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Re) 새롭게(NEW)" 영적으로 깨어나고자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담고 있다.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한 미 동북부 지역은 유수 명문대학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지성의 도시, 지성의 지역의 한 복판에서 청장년들이 세상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성의 청년으로 거듭나고자 모이는 것이 ReNEW 집회이다. 참가자는 뉴잉글랜드 지역은 물론 미주 전체의 한인청년,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renewusa.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집회와 관련된 문은 전화 (617)852-5590(권오진 목사)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ReNEW)



미주성서화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충남서산국제성서축전 미주참가자들을 모집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은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성서화의 꿈, 서산에서 세계로' 주제

2011 충남서산국제성서축전 미주대표단 기자회견

2011년 충남서산국제성서축전(2011 World Holy City Convention)이 오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 서산신복음교회와 덕산 온천호텔에서 개최된다. '성서화의 꿈, 서산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서축전은 충남서산성서화운동본부(백승억 목사)와 세계성서화운동본부(전용태 장로, 김인준 목사)가 공동주최하며 2011 충남서산국제성서축전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이를 위해 미주성서화운동본부는 2일 성서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년 한국과 해외를 번갈아 가며 열리는 국제성서축전이 올해는 충남 서산에서 열린다"고 밝히며 "미주지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중

심으로 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페루 등에 거주하는 100명 규모의 크리스천들로 대표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서화 대회는 저녁집회, 세계성서화운동전략회의, 문화행사, 도시전도훈련, 캠페인(의료, 봉사, 나눔, 섬김), 교회 순회집회, 서해안관광으로 진행된다. 박희민 미주대표회장은 "이번 성서축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성서화의 열매가 서산은 물론 미주지역에서도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성서축전은 이미 서산지역에 있는 200여개 교회들이 지역사회 복음화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전도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이번행사의 특징은 통일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북한 성서화'를 위한 영적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며 '영적 친교'를 의미하는 '영친'을 통해 각 지역 성서화운동본부가 북한 특정지역을 가슴으로 입양해 기도와 후원을 하게 된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미주대표단은 10월 10일(월) 오전 0시30분 LAX에서 출발하며, 참가비는 체재비, 등복비 포함 1,250달러(성시투어 비용 150달러는 별도). 희망자는 신청서를 www.holycityusa.org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참가비와 함께 9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213)384-5232, laholy-city@yahoo.com (박준호 기자)

미드웨스턴신학대 한인목회자 대상 공개강좌

5일 '스트레스와 갈등해결' 주제, 강사 김만풍 목사

미드웨스턴신학대학교(총장 필 로버츠,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이하 MBTS)는 한국어 석박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은 시작한 MBTS는 1957년 미조리 주 캔사스시에 세워진 남침례교단 산하 신학교로 NCA-HLC(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Higher Learning Commission) 및 신학교 인가기관인 ATS(북미신학교협회)의 정식 멤버이다.

본교 한국과 디렉터 정태우 교수는 "MBTS는 한국교회를 잘 이해하는 전도신학자 필 로버츠 총장의 리더십으로 큰 꿈의 나라를 펴고 있는 학교이다. 복음적이면서도 특이 아시아를 향해 열려 있는 실천목회를 중시하는 학교"라고 소개했다. 그는 "본교의 한국어 프로그램에는 신학석사(MATS), 목회학박사(D.Min), 그리고 교육목회학박사(D.Ed. D.Min)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신학석사는 45학점, 목회학박사는 30학점, 그리고 교육목회학박사는 42학점을 이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목회학 박사과정과 교육목회학 박

사과정은 캔사스시내 본교캠퍼스와 타 지역 오프캠퍼스 강의로 이루어진다. 교수진은 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목사), 박성근(LA한인침례교회), 페이스김(골든게이트침례신대), 성백승, 김만풍 교수 등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MBTS는 한인목회자들을 위한 공개강좌를 지난 5일 '스트레스와 갈등해결'이라는 주제로 일반인침례교회(담임 한중수 목사)에서 김만풍 목사(워싱턴지구촌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 이민경 선교사(1-816-414-3754, kmats@mbts.edu, 사무실 성백승 교수(323-533-0671)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미드웨스턴신학대 한인목회자 대상 공개강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미국에 기도의 불을 지피고 있다. 인종과 교단을 초월해 기독교인들은 회개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 주요 목회자들은 집회와 예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라' 희망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다.

대규모 기도운동은 목회자가 아닌 현역 정치가로부터 시작됐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주

구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의 위기에 따라 신자들의 기도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페리 주지사는 이날 "국가의 위기상황에 처해 시장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지고 정부 청사에서는 분노가 목격되고 있다"며 "우리를 창조하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밤 시카고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미국 최대 교회

신의 트위터에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해 메시지를 올렸다. 하나님께 대한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강조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더머시 켈러 목사(리디미교회)는 "물질은 얻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 순종하라"고 했다. 릭 워런 목사(새들백교회)는 "신실하지 못한 세상에 살아 신실함을 유지하라"고 했다. 찰스 스탠리 목사(인터치미니스트리)도 마태복음 28장 20절 "

신용등급 강등 미국...기도의 불 붙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희망을 가지라'

자인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6일 휴스턴 리라이언트 스타디움에서 대규모 기도회를 갖고 '위기를 극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답(the response)'이라고 명명된 이날 기도회에는 텍사스 주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2만 명이 넘는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 한 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기도회에 대해 굶지 않은 시각도 있었다. 페리 주지사의 대신 행보와 맞물려 종교를 정치적 도

를 이끄는 조엘 오스틴(레이크우드교회) 목사 부부는 시카고 하이 트삭스팀의 홈구장인 유에스엘를 러필드 야구장에서 '희망의 밤' 집회를 열었다. 오스틴 목사는 특유의 '긍정의 힘'을 강조하며 5만 청중을 향해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다"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자"고 권했다. 이날 집회는 위성방송으로도 생중계돼 700만 명이 시청했다.

주요 복음주의 목회자들도 자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존 파이퍼 목사(베들레헴침례교회)는 이례적으로 17세기 영국 장로교 목회자였던 존 플레이벌의 신앙을 소개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목격하는 6가지 방법'이란 글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 은혜, 불변하심, 신실하심을 믿을 것, 하나님의 지혜에 눈을 맞출 것' 등을 제시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 아 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41-20 Queens Blvd., Sunnyside, NY 11104 www.nakwonchurch.org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평 아 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5:50 금요일 기도회: 오후 9:00 Tel: (718)464-2295, (718)358-8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 아 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 요 일 아: 오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8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멜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 아 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새 생 기 도 회: 오전 6:00 수 요 일 예 배: 오전 10:30 수 요 일 예 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718)461-2810(Fax 중동),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org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영성예배)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일(사)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org	뉴욕 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평 아 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토) Tel: (718)279-7273, 2766,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7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 이문예배: 오전 7:15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7부 늦은예배: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6:00(월-토) Tel: (718)762-5756, 2525, Fax: (718)961-3111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화-금) 금요일기도회: (매월 1주, 3주) 8:00 Tel: (201)342-9194(Cel), Fax: (201)943-6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주 일 학 교: 오전 10:30 수 요 일 예 배: 오후 8:30 토 요 회 교: 오전 10: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 일 예 배: 오전 11:30 주 일 학 교: 오전 9:45 수 요 일 예 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Fax: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순복음 뉴욕교회 담임목사: 김남수 주 일 예 배: 오전 8:30(영성예배) 평 아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금 요 예 배: 저녁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만화탄) 6:30 Tel: (718)321-7800, Fax: (718)321-9394 130-30 51Ave., Flushing, NY 11354	호러인 교회 담임목사: 김수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평 아 예배: 오후 2:30 수 요 예 배: 오전 8:3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899-8309, Fax: (718)899-8433 68-38 47th Ave., Woodside, NY 11377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 일 예 배: 오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6:00 평 아 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 1부예배: 오전 12: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평 아 예배: 오후 8:00 수 요 예 배: 오후 8:20 금 요 예 배: 오후 8:20 Tel: (718)310-7061, 7062 188-12 72Ave Fresh Meadows, NY 11366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 일 예 배: 오후 1:00 평 아 예 배: 오후 2:00 새 생 기 도 회: 오전 8:15 매일예배: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a.org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영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Tel: (718)969-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I-SAO PAULO-SR-BRASIL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예배: 오전 9A(1부) 주일예배: 오전 11A(2부)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NCF영어: 오후 1시 30분 TEL: 718-672-1150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queensch.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 요 기 도 회: 저녁 9: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 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66-4400 Fax: (718)86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Tel: (595)21-574-89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평 아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99, Fax: 3209-9343 Rua Joaquin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BRASIL	브라질 서교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 아 예배: 오후 7: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 Tel: (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밤예배: 오후 7: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A.S., ARGENTINA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 일 학 교: 오전 12:00 Tel: (595)21-574-89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 요 기 도 회: 저녁 9:00 7148루기교회: 아침 7:40(매일) 유 초, 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30 TEL & FAX: (562)56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 신학교 교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 3부 스코티아 학교) Tel: (595)21-574-89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가 2011년 가을학기 주야간 학생을 모집한다. 미주한인장로회 총회(KAPC, 총회장 강기봉 목사)의 교단 신학교인 본교는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각 4년) △대학원: 목회학석사(3년), 기독교교육, 선교학(각2년) 이외에 여교역학과(3년)이 있다. 서류는 입학원서, 목사추천서,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신앙고백서, 사진 등과 입학전형료 30달러. 원서마감은 9월 2일(금) 오후 6시, 10일(토) 오전 11시 필기시험과 오후 2시 면접이 있다. 한편 입학합격자와 재학생이 함께 하는 영성훈련이 9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매일 오후 8시에 있게 된다.

▲문의: (718)463-7163, (646)717-2733

스페인어 언어훈련학교 개강

PGM선교회(국제대표 호성기 목사)가 라틴아메리카 선교 관심자들을 대상으로 스페인어 언어훈련학교를 개강한다. 오는 9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30주간 계속 된다. 장소는 뉴저지장로교회(펠릭 캠퍼스)이며 선착순 50명. 강사는 다니엘벤 전 과테말라 선교사이며 공개강의 8월 29일(월) 저녁 7시30분-10시, 등록금은 400달러이며 8월말 등록자는 350달러, PGM훈련생/졸업생은 300달러이다. 이메일 danielbyun47@gmail.com

▲문의: (914)954-0304, (718)930-1250

백투워십 제 2차 스태프 훈련생 모집

청년 연합선교단체 백투워십(대표 이종길)이 제 2차 스태프 트레이닝을 개최한다. 일시는 9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6주간. 장소는 조은교회(플러싱 한양마트 옆)이며 강사는 김경환 목사. 회비는 50달러이다.

▲이메일: backtoworship@gmail.com

찬양반주자 구함

어린이양육장교회(담임 유승례 목사)가 찬양반주자를 찾고 있다. 이중언어에 불편 없고 미국체류 5년 이상 된 분으로 2세 목사와 사역하게 된다.

▲문의: (201)962-5825, 564-7770.

2세 담당사역자 청빙

오하이오주 디트로이트 인근 톨리도시에 위치한 톨리도한인연합교회(담임 박정인 목사)에서 2세 담당 사역자를 청빙한다. 파트타임과 파트타임 모두 가능하며 이력서(사진과 가족소개 포함), 신앙 간증문, 사역비전서, 3명의 추천인 연락처 등이 필요하다. www.ancctoledo.net

▲문의: (419)535-5553 이메일: ancctoledo@gmail.com

영적 의미가 더 큰 대회 되기를

뉴욕교협, 할렐루야복음화대회 지역분과위 대표간담회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이 지난 2일 오전 11시 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위해 지역분과위원회(위원장 황영진 목사) 대표 간담회를 갖고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후원 및 협력을 요청했다. 지역구분은 부활절 연합예배 때와 동일하게 26개 지역으로 나뉘었다.

이희선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

의 사회로 송병기 목사의 기도 후 시작된 간담회는 황영진 목사, 양승호 목사(지도자컨퍼런스 준비위원장), 김연규 목사(지도자컨퍼런스 진행위원장) 등이 대회와 컨퍼런스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김원기 목사는 "이번 할렐루야 대회도 30년 전통을 잘 지켜 뉴욕교회의 일치와 단합을 보여주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숫자보다 정신적 영적

의미가 더 큰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진 목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화가 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회원교회의 동참 △재정 후원 △뉴욕교회의 부흥을 위해" 제 목적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복음화대회 지역분과위 대표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뉴욕교협 '지도자컨퍼런스' 준비위원 현장답사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이 지난 1일 할렐루야복음화대회에 이어서 주최하는 지도자컨퍼런스(9월 12-14일, 월-수)를 개최장소인 필라델피아 스프루스레이크 리트릿(Spruce Lake Retreat) 현장답사를 다녀왔다. 참가 자격은 뉴욕교협 회원교회의 지도자(목사, 사모, 장로)들로 집중강의와 체력단련, 친교 등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과 연장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참가비는 20달러로 인터넷 등록을 받고 있다. 뉴욕교협 홈페이지(http://nyckcg.org).



지라니어린이합창단원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

희망의 노래, 결코 멈출 수 없다

케냐 지라니어린이합창단 미주순회공연

케냐 지라니 어린이합창단이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미주순회공연에 나섰다.

이들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는 결코 멈출 수 없다("멈출 수 없는 희망의 노래", The Unstoppable Song of Hope)는 의지외 이번에는 특별히 할렐루야합창단과 함께 공연함으로써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넘는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지난 5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 기자회견을 가진 미주홍보팀(담당자 김은경)은 지라니 영상소개에 이어 합창단원들의 노래 3곡을 연주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의 감독을 맡은 헬렌차 씨는 이번 공연에 대해 "헬렌의 '조이풀, 조이풀 데이'를 시작으로 클래식음악부터 흑인영가, 미국대중음악, 아프리카 음악 등 4개 무대로 전개된다"며 "할렐루야가 결성된 지 12주밖에 되지 않아 실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지라니문화사업단 단장 임태중 목사는 "이번이 지라니 2기인데 오디션에 1천명이 몰렸다"며 "지라니합창단이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에게 문화체험을 하게하고 세계 정상 합창단이 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세나 갈렘, 또 만델라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글로벌 리더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2012년 개교하는 지라니아트스쿨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신 지휘자 이번 공연하는 지라니는 3년 전 멤버들을 완전히 교체했으며 1기에 비해 연령이 어려 음색이 가볍고 밝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6일(토) 오후 7시30분 뉴저지 베다니연합감리교회 △7일(주) 오후 6시 뉴저지 필그림교회 △11일(목) 오후 7시 하버드한인선교회 △14일(주) 오후 3시 뉴저지장로교회 △19일(금) 오후 7시 드류대학교 △20일(토) 오후 5시 세이럼연합감리교회 △21일(주) 오전 10시 30분 리버사이드교회 △오후 5시 예일대학교 바텔 채플 △22일(월) 오후 2시 인터치센터 △23일(화) 오후 8시 뉴저지 포트리커뮤니티 야외음악당 △24일(수) 오후 8시 뉴저지 갈보리연합감리교회 △26일(금) 오후 8시 순복음교회 프라미스극장 △27일(토) 오후 4시 노필드교회.

▲문의: (908)461-1178



뉴욕효성교회 설립1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한 목회자들.

"뿌린 씨 거두는 10년 될 것"

7일 뉴욕효성교회 설립10주년 기념예배

뉴욕효성교회(담임 김영환 목사)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다.

지난 7일 저녁 6시 본 교회당에서 드린 예배에서 김영환 목사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씨를 뿌렸으니 이제 앞으로 10년은 거두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나님의 일은 돈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갖고 한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말했다.

이날 설교는 최창섭 목사(에벤에셀선교회 공동담임)가 "교회의 교회됨"(마16:18, 엡1:23)이라는 제목으로 했다.

최 목사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지만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첫째,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교회의 본질에만 충실한 교회가 돼야 한다. 셋째, 교회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즉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고 우리는 종(노예-돌로스)으로 쓰

임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 주님이 하신 중점 사역 3가지-가르침, 전파, 치료에 충실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성장시켜주신다. 내 교회만 생 각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 또한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김영환 목사 사회로 기도 이선일 목사(뉴욕침례교지방회장), 성경봉독 안승백 목사(뉴욕침례교지방회 회계), 특송 설가대, 설교 최창섭 목사, 특별찬양 뉴욕기독부합창단, 헌금기도 노기송 목사(새예루살렘교회), 헌금특송 김한선 자매, 축사 김원기 교협회장 김용기 목사회장, 격려사 김중덕 교협증경회장, 광고, 특별기도, 축도 허길 목사(교협증경회장), 만찬기도 이재덕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담임 김영환 목사는 10년전 웨체스터에서 효성교회를 개척한 후 5년 전 뉴욕으로 이주했으며 노인사역과 병원사역에 헌신해왔다. (유원정 기자)

제5회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제5회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 주최로 지난 6일 저녁 퀸즈장로교회당에서 열렸다.

음악회는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교문)의 개회기도 후 소유영(테너), 이철화(소프라노), 김명지(베이스), 이은주(메조소프라노), 권사합창단 등이 가곡과 찬양곡들을 노래했다. 이날 축도는 황영진 목사(고문, 낙원장로교회 담임)가 했다. 이 선교회는 대표 심의례 전도사



자신이 암에서 치유 받은 체험자로, 투병 중에 있는 환자들이 서로의 경험담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고 암 재발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과 세미나 등을 가지며 매일 중보기도모임, 가족야유회, 터키 만찬, 송년웃음날 등을 하고 있다. 연락처 646-247-1568 (유원정 기자)



NEWYORK REFORMED BIBLICAL SEMINARY 학생모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눅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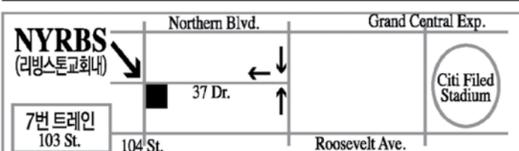
학교안내

- 본교는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Education Department의 허가를 받아 2004년 1월8일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신학 교육기관으로 On Campus 와 Off campus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 본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총신총) 총회의 인준을 받아 미주 동부노회가 운영하는 사역자 양성기관으로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전수합니다.
- 모든 졸업생은 본 교단인 인정하는 NYRBS학위를 받게 됩니다.
- 남녀 목회학 석사(M.Div)과정을 이수한 자는 총회 헌법 절차에 따라 미주 동부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한국 총회신학 노회에 이명미 가능합니다.
- 총회 및 총회 신학교 Saint Mission University와 학점교류협정 전화: (032)861-0131 | 전화: (213)251-0191 | www.chongsin.org | www.saintmu.us
- 미주동부노회: (718)961-3631 / Fax 겸용 | 노회장: 강신용 목사

모집학과 및 지원자격 안내

과 정	이수학점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B. Th)	128 units	4년	고졸
교육학(B.C.E)	128 units	4년	고졸
상담학(B.C.C)	128 units	4년	고졸
음악학(B.C.M)	128 units	4년	고졸
선교학(B.Miss)	128 units	4년	고졸
목회학(M.Div)	96 units	3년	대졸
교육학(M.C.E)	64 units	2년	대졸
상담학(M.C.C)	64 units	2년	대졸
음악학(M.C.M)	64 units	2년	음대졸
선교학(M.Miss)	64 units	2년	대졸

주간반 10AM(목) 야간반 6:30PM(월, 화)



등록안내 및 참고사항

- 소정양식
- 사진 2매
- 신앙 고백서
- 추천서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편 입 대학원)
- 마감일(매년 1월, 8월말)
- 각종 장학금 수여합니다. 년 2학기 수업을 하되 계절학기 특별 집중 세미나로 학점 보충 및 수업기간 단축기회를 드립니다.
- 졸업생에게 사역자 알선 및 교회 개척을 도와드립니다.
- 노회가입(편목)문의환영

※ 2011년도 가을학기 개강일 9월 8일(목)

- ▶ 학교: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리빙스톤교회)
- Web Site: www.rbsny.org/www.nyrb.org
- ▶ 메일: 140-32 Holly Ave. 2FL, Flushing, NY 11355
- ▶ 입학문의: (718)961-2171/(917)862-0523
- E-mail: kyu2000@hotmail.com

작은교회 목회자자녀장학금마련 1일식당

남가주교협...주님세운교회에서 4천불 전달

남가주주교협교회협의회(회장 민중기 목사)는 작은 교회 목회자자녀 장학금 마련 1일식당을 8일부터 11일까지 LA 한인타운 내 다호갈비를 비롯 남가주지역 7개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1일식당은 남가주교협의 행사의 취지에 공감대를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몰려들어 밥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큰 성원을 보였다.

민중기 회장은 "교협의 작은 헌신과 도움을 통해 작은 교회 목회자자녀를 위한 장학금 마련 1일식당을 열게 돼 감사하다. 이번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성원을 보내줘서 감사하다. 이를 통해 목회자들과 자녀들이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도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을 박성규 목사가 민중기 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0년 처음 시작된 1일식당은 첫 회에 1만5천 달러가 모아졌으며 올해는 2만5천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50명의 목회자자녀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첫날 다호갈비에서 주님세운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 4천 달러

(박준호 기자)



YNOT파운데이션은 2011 지역을 섬기는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YNOT재단 한인비영리단체에 20만불 지원 나성영락교회, 2011지역지원프로그램 시작

한인 커뮤니티 비영리단체 기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나성영락교회(담임 림형천 목사) 산하 YNOT 파운데이션(대표 이사무엘 목사)이 올해 총 2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키로 하고 단체들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

본 재단 이사장인 고영석 장로는 "지난 2004년에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 재단의 '지역을 섬기는 프로그램'은 미주한인 및 이웃을 섬기는 지역사회의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히 올해의 경우 15만 달러의 예산에 나성영락교회와 연관이 없는 한 독자가 무명으로 5만 달러를 기부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을 섬기는 프로그램 지원금의 목적은 한인사회를 섬기는 비영리 단체들의 현 프로그램을 향상 또는 확장해 한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며 가난한 자의 친구였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지난해에는 총 105개 단체의 신청을 받아 한인 가정상 담소를 비롯한 60개 단체에 20만 달러 이상이 지원됐다.

신청지원 자격은 가정폭력, 아동학대피해자, 연장자, 발달장애, 마약남용자,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봉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며 한인단

체가 아니라도 한인들을 돕는 단체라면 어떤 단체든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YNOT 파운데이션 웹사이트(www.ynot-foundation.org)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우편(1721 N. Broadway LA, CA 90031)으로 9월 2일(금) 오후 5시까지 보내면 된다. 선정 결과는 11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수여식 및 만찬은 12월 4일 열리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342-2808이나 이메일 info@ynotfoundation.com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서울신학대 개교100주년기념 '북한고아원 돕기'

서울신학대학교 카펠라 합창단 미주초청 연주회

서울신학대학교 카펠라 합창단(지휘 서은주) 미주초청 연주회가 7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됐다.

서울신학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며 '북한 고아원 돕기' 일환으로 열린 이번 연주회는 'God so Loved the World', 'Our King of King', 'Evening song', '꽃구름속에', '맘뎀', '고향의 봄', 'At the Name of Jesus', 'O Lord, You know My

Heart' 등 가곡과 성가곡을 불렀으며 '예수 오셔서' 등 앵콜곡을 불렀다.

▶

카펠라 합창단 연주회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를 담임 박성규 목사(남가주교협 부회장)가 민중기 회장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성규 목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며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으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동참해 협력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 모쪼록 이번 행사가 아름답게 꽃피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행사를 위해 다호갈비를 찾은 자들은 목회자 자녀들이 일일식당의 취지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한다면 호평했지만 타운 내 한군데 식당에서만 행사가 열린 점을 지적하며 좀 더 많은 식당이 이에 동참했다면 좀더 효율적인 행사가 됐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취임소감을 말하고 있는 최재영 영광의빛교회 담임목사

영광의빛교회 교회설립 7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최재영 담임목사 취임식

영광의빛교회는 교회설립 7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최재영 담임목사 취임식을 7일 오전 11시에 개최했다.

이번 취임예배에서 최재영 목사는 "성도들을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며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겠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예배는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최재영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 서영안 장로가 대표기도 후 본 교회 청년대학부의 특송으로 이어졌으며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배가(행6:1-7)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박준호 기자)

이날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합창단과 남가주 장로성가단, 그리고 Korean American Young Artists가 찬조 출연해 카펠라합창단 공연을 빛내주었으며 소중환사람들 사역 동영상과 사역소개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교협 광복절기념 감사예배 및 특별강연회

남가주주교협교회협의회(회장 민중기 목사)는 광복절 66주년을 맞아 기념 연합 감사예배 및 특별 강연회를 갖는다. 연합 감사예배는 8월 14일(주) 오후 5시 총현선교교회에서 드리며 강연회는 15일(월) 오전 10시30분 JJ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된다.

▲문의: (213)255-1725

제2회 8.15경축 평화통일기원 및 국가조찬기도회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박용덕 목사)와 OC, SD 평화통일자문회의(회장 한광성)는 제2회 8.15 경축 평화통일기원 및 국가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13일(토) 오전 7시30분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에서 개최한다.

▲문의: (714)480-9556, 9557

베델한인교회 대각성 기도회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가 40일 대각성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크리스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주제아래 진행되고 있는 본 기도회는 지난 8월 1일(월)부터 시작돼 9월 9일(금)까지 이어진다.

▲문의: (949)854-4010

남가주사랑의교회 2011년 여름 성령축제

남가주사랑의교회는 2011년 여름 성령축제를 '주가 이루시리라'(시 37:4-6)라는 주제로 9일(화)부터 13일(토)까지 오후 7시(토요일은 오후 7시 30분) 개최한다. 강사는 9일과 10일은 한홍 목사(새로운교회), 11일부터 13일까지는 백동조 목사(목포 사랑의교회)가 맡는다.

▲문의: (714)772-7777

새 찬양음반 출판 감사콘서트

생수의강선교회(담임 안동주 목사)는 조효성 목사의 새찬양음반 'Lord, you alone' 출판 감사 찬양콘서트를 8월 20일(토) 오후 7시에 개최한다.

▲문의: (562)653-0178

동부지역 교회연합 광복절 연합기도회

동부지역 교역자협의회(회장 고승희 목사)는 동부지역 교회연합 광복절 연합기도회가 14일(주) 오후 6시 아름다운교회(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에서 개최된다.

▲문의: (626)810-3455, 4000

한국 평안교회 담임목사 청빙

서울 중구 순화동에 위치한 평안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만 40세-55세, 정규신학대학 또는 일반대학 졸업 후 총신 신학대학원(M.Div)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1차 지원서(www.epapc.org에서 다운)와 설교CD를 제출하고 2차 서류는 학위증명서, 본인 및 사모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소속교단 및 노회 소속 증명서, 자격증, 출판물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776-1854/755-7103

제1회 미국유학생활을 위한 전략세미나

아리조나 템피스트로교회(담임 윤정용목사) 여호수아 청년회는 '제1회 성공적인 미국 유학생활을 위한 전략세미나: 유학에서 취업까지'를 20일(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본교회 친교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현지 교수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들이 강사로 나와 성적관리와 시간관리 등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과 전공에 따른 유학 시작부터 취업까지 전반적인 조언 그리고 유학생 배우자로서의 고민과 비전 상담 등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문의: (480)726-0191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2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2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록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화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1년 8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1년 9월 18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유 료 광 고 안 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 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 팅 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기독교계 세대교체 가속화할 듯

한국교회 초고속 성장 이끈 1세대 잇단 은퇴, 타계

[연합뉴스] 옥한흠 사랑의교회 원로목사에 이어 하용조 은누리교회 담임목사가 타계하고 다른 '개신교계 1세대' 목사들이 잇따라 은퇴하면서 개신교계의 세대교체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들 개신교계 1세대는 전쟁과 가난으로 신음하던 이들에게 '희망'을 설교하며 1970-80년대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이끈 주역이다.

작년 9월 72세를 일기로 타계한 옥한흠 목사는 1978년 서울 서초동에 사랑의교회를 개척해 재적교인 8만 명, 출석교인 4만5천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로 키워냈으며 지난 2일 소천한 하용조(65) 목사는 1985년 은누리교회를 세워 재적교인 7만 5천여 명의 교회로 성장시켰다.

한국 교회 초고속 성장의 상징적인 인물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1958년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장모인 최자실 목사와 함

께 천막교회를 시작,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를 일궈냈다.

옥한흠, 하용조 목사와 함께 국내 복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목회자로 꼽히는 이동원(66) 지구촌교회 목사도 지난해 조기 은퇴를 선언, 원로목사로 물러났다.

교회를 개척한 초대 목사들이 이처럼 잇따라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개신교계의 세대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경기도 성남의 할렐루야교회는 김상복(72) 담임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미국 남가주 사랑의교회 김승욱 목사를 담임목사로 영입했으며 경기도 남양주 두레교회도 김진홍(70) 담임목사 후임으로 미국 보스턴 고든 콘웰신학교 교수인 이문장 목사를 초빙했다.

조용기 목사도 사역 50년째인 2008년 이영훈 목사를 담임목사로 임명하고 원로목사로 물러난 데 이

어 올 5월에는 교회 내 핵심 기구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과 굿피플인터내셔널 이사장직에서도 사임했다.

옥한흠 목사는 일찌감치 2003년 정년을 5년 앞당겨 65세에 원로목사로 물러나고 미국 남가주 사랑의교회를 개척한 오정현 목사를 후임으로 세운 바 있다.

개신교계 1세대 목사들의 타계와 은퇴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 교회의 눈부신 성장과 해외 선교 운동을 이끌었지만 대형 교회 위주의 성장주의와 물량주의, 개(개)교회 이기주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교계 내의 자성도 세대교체 움직임의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 성장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젊은 목사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건강한 교회, 새로운 목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인 '교회2.0목회자운동'이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교회2.0목회자운동'은 창립 선언문에서 "한국 교회는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위기의 핵심은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 성경과 예수가 말한 본래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성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3일 "한국 교회 1세대의 모습은 한국 사회 전반의 흐름과 유사하다"면서 "박정호,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는 외적으로, 양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내적으로, 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한국 개신교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나 규모에 있어서 보기 좋아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나 질적인 문제를 소홀히 해왔던 게 많은 것 같다"면서 "2세대들이 1세대들과 남긴 유산 중 비판할 부분을 비판하고 계승해야 할 것은 계승해서 질적으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 역사가 사라진다!

교계, 교과부에 수차례 교과서 시정 요구

[미션라이프] 역사논쟁이 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2011년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역사교육과정 개정안 확정을 위한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8-9일쯤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과거에 비해 너무 축박한 일정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개월여의 작업 결과물을 갖고 공청회를 가진 뒤 8월에 고시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내용상으로도 근현대사의 비중이 지나치게 줄어든 것이 도마에 올랐다. 개정안안은 중학교에서 전근대와 근현대의 비율을 7대3, 고등학교에서는 5대5로 정했다. 현재 80%정도인 고교의 근현대사 부분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 중에도 해방이후 현대사의 비중이 10%남짓에 불과해 역사교육의 의미 상실이라는 학계의 성토가 높다. 정치 등에 비해 종교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결함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의 역사부분이 거의 언급되지 않게 된 점이다. 특히 개정안에서 불교 유교를 비롯한 서학(천주교)과 동학(천도교)에 대한선 분명하게 서술하도록 돼있으면서 기독교(개신교)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내용이 없다. 교과서의 집필위원리를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기독교의 역사를 아예 무시하겠다는 의도다. 기독교계에선 시정을 요구했지만 "축적된 관련 연구결과가 없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당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이렇듯 무시돼도 좋은 것인가. 이것이 과연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역사기술인가. 한국기독교는 개항 이후 한국 근대문명의 선구자였다. 언더우드를 비롯한 초기 선교사들은 교회 뿐 아니라 연세대 이화여대 등 수많은 교육기관, 세브란스 병원의 모태가 된 제중원 등 의료기관을 세워 이 땅의 변화와 근대화를 주도했다.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었던 신분제 철폐와 초혼·축첩 등 봉건적 악습 폐지도 앞장섰다. 남녀평등 같은 혁신적 활동도 벌였다. 도시민권과 농촌 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제와 복지 시스템도 기독교가 기초를 놓았다.

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사회의 산업화·민주화에서도 기독교는 크게 기여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다음달 열리는 91회 총회에서 채택 여부가 판가름난다. 하지만 운영위에서도 조사위 보고를 놓고 격론 끝에 찬성 41, 반대 28로 겨우 통과됐던 만큼 이번 총회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9월 총회를 앞두고 충북노회에서 "한국 기독교의 활동이 역사 교과서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현의안이 올라와 있다. 총회 교육지원부에서는 "미션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현의안도 내놓은 상태다.

면 누구도 기독교의 이런 역사적 업적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기독교를 무시하는 역사기술이 계속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근본적으로 저술에 참여하는 학자들의 시각(史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국사 편찬에 관여해온 학자들의 주류는 '역사'에 의한 역사를 강조한 E.H. 카의 역사관을 따르고 있는 듯하다. 역사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중시하는 카의 역사관은 역사를 생동화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사가의 이념과 주관성 개입으로 역사가 왜곡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기독교가 국사에서 홀대 받은 것은 바로 이같은 카의 역사사 프레이임을 좇는 학자들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레오폴트 폰 랑케의 실증주의적 프레이임으로 한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랑케는 카와 달리 '사실로서의 역사' 정치와 이념 등으로부터 독립된 '역사'를 주장했다. 그는 역사를 현재의 시각으로 읽으려는 카와 달리 과거의 원사료에 충실하면서 사실의 절대성과 객관성에 근거한 역사기술을 강조했다. 과거 사실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져야지 현재 사가들의 어떤 이념이나 이론에 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증주의 프레이임으로 바라보면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에 남긴 족적은 뚜렷하다. 이는 '해석'이 아닌 '팩트(Fact)'다. 팩트를 중시하는 사가(史家)라면 이런 기독교의 족적을 부인해선 안된다. 국사는 이제 왜곡과 편협함에서 해방돼야한다. 기독교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료·복지·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여해온 부분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것은 그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다. 고시를 연기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정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예장통합 "역사 바로잡자" 교과서 자체 제작 추진

역사 교과서의 기독교 폄하와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006년 교단 임원들이 사법까지 감행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예장 통합은 기독교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대안 교과서 제작까지 추진하고 있다.

9월 총회를 앞두고 충북노회에서 "한국 기독교의 활동이 역사 교과서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현의안이 올라와 있다. 총회 교육지원부에서는 "미션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현의안도 내놓은 상태다.

'적극적 연합' '신중한 연합' 의견 분분

예장고신, 9월 총회 앞두고 임원후보 정견 발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총회장 윤현주 목사)가 다음달 6회 총회를 앞두고 연 임원후보 정견발표회의 쟁점은 교회연합운동이었다. 총회장 후보인 정근두(62) 울산교회 목사를 비롯해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주준태(63) 부산 송도제일교회 목사, 박정원(67) 부산 대연중앙교회 목사는 8일 오후 서울 반포동 예장고신 총회회관에서 열린 정견발표회에서 "한기총 금권선거 때문에 교회연합운동이 평가절하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목사는 "칼병은 '교회 분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일"이라고 했을 정도로 교회 연합을 강조했다"며 "금권선거로 인한 사회적 지탄이 한기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지 한기총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목사도 "지금은 목회자들이 먼저 자기를 살피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회복해야 할 때"라며 "고신 교단이 앞장서서 이런 좋은 자세를 갖고 지속적인 연합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예장 합선과의 연합 가능성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신학

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체성이 같다는 게 이유다. 여기엔 예장 고신만 아니라 예장 합선 목회자들도 동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목사는 "합선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들도 고신을 가장 정체성이 맞는 교단으로 꼽고 있다"며 "5~6년 안에 이런 일교단 연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또 "지난 59회 총회에서 양 교단의 연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번 회기에는 공식 모임을 한번도 가진 적 없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영호(67) 부산 소명교회 목사는 인위적인 연합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더 큰 분열

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목사는 "연합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야지 인위적으로 연합하면 분열의 암적 요소만 더 키우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로 부총회장 김창대(69·김해 모 든민교회) 이귀석(64·부산 화명제 일교회) 후보는 각각 교단의 정체성 회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장로는 "고신의 순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범교회적 회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로는 "정체성 회복 위원회를 만들어 고신 정신을 강화하고 교회의 본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민주화가 진행되었지만 한국 교계에서는 마치 중세 암흑시대처럼 특정인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비판이 터부시되고 있다며 저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번 결의에 대해 양 교수는 "연구 결과에 대해 교단이 나서서 징계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학문적인 검토와 토론이 우선"이라며 "과거를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을 때 개인도 교단도 발전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운영위를 통과한 이번 보고안은 다음달 열리는 91회 총회에서 채택 여부가 판가름난다. 하지만 운영위에서도 조사위 보고를 놓고 격론 끝에 찬성 41, 반대 28로 겨우 통과됐던 만큼 이번 총회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예장고신, 양낙홍 교수 저서 '폐기처분' 논란

[미션라이프]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양낙홍 교수(고신대 신학대학원)의 저서 '한국장로교회사(생명의말씀사 간)'에 대해 "교단 정신을 왜곡했다"며 폐기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해당 저서의 신학대학원 교재 사용 금지, 해당 교수의 순환보직 지시 및 총회 앞에 사과 할 것 등을 결의했다.

고신 총회 운영위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22일 대구 성동교회에서 열린 양낙홍 교수 고신 역사성 및 정체성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예장고신은 지난 회 60회 총회에서 부산노회의 현의안을 받아들여 '양낙홍 교수 고신 역사성 및 정체성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용호 목사)를 꾸렸고

특별위원회는 약 8개월간의 조사 끝에 총회운영위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번 운영위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조사위와 운영위가 문제 삼은 양 교수의 저서 내용은 교단 설립자인 한상동 목사를 장로교 분열의 원인으로 본 것이다. 양 교수는 책에서 '한상동이 사실상의 교회 분열을 의미하는 고려신학교 복구를 선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상황이 바뀌었다는 한상동의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상동이 승동측과의 합동을 결심했던 결정적 요인은 박윤선의 고신 이탈로 말미암아 신학교 운영이 치명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된 상황이었다. (이하 생략)'(한국장로교회

사 660-661쪽) 등이다. 이에 대해 운영위는 보고에서 "이 책은 학문의 자유를 남용하고 교단의 권위와 정신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교단정신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의 '한국장로교회사'는 한국 교회에서는 금기시되다시피 한 장로교의 분열 배경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2008년 출간 때부터 주목을 끌었다. 책은 신사참배와 함께 해방 후 고신, 기장(한국기독교장로회)의 분열, 예장통합과 합동의 분열, 예장합동과 고신의 합동과 재분열 문제 등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양 교수는 책 서문에서 '일반 사회에서는 이미 권위주의 사대가 물러가고 심지어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비판과 지적이 당연시될 정

24시간 영입

뉴욕코타방울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맨허튼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6-0201

다이나믹스

교회 행사에 필요한 주문 제작 티셔츠, 배너 등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앞뒤 Two color 로고 프린트 T-shirt 50벌 이상 \$5.00
광고배너 제작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태권도, 점도 및 각종 무술장비

Tel 516-354-8484, Fax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dynamicsworld.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sbm.or.kr

크리스천이 제대로 살아야 하는 안입니다. SBMI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의 3대 목표

1. 믿음의 신앙원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원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원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총재 왕인영 목사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RAL MOVEMENT

<월간> 미주크리스천 다이제스트

빛과 사랑
Light & Love
발행인 권태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883-1142

136-20 38th Ave, suite 9A
Flushing, NY 11354
lightnloveny@yahoo.com

인터뷰

김옥란 선교사 (KAPC세계선교회 / 남가주든든한교회파송선교사)

“남은 삶 하나님 생각에 걸맞도록 최선”

남편 보낸 후 절망 중에 찾아오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지난 7월 18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강기봉 목사) 세계선교회(회장 김경진 목사)에서 김옥란 사모가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됐다. 2008년 12월 남편(고 김충일 목사)을 먼저 떠나보낸 후 실의에 잠겨있던 김옥란 사모는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로운 소명을 깨닫게 되어 선교사로서 남은 생을 살며 남편의 다하지 못한 복음사역에 헌신기로 다짐했다. 김 선교사는 우선적으로 중남미쪽 치과 단기선교를 시작으로 추후 언어가 통하는 중남미나 북한쪽에 치과병원을 개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치유사역을 이어갈 계획이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남은 제 삶이 하나님의 생각에 걸맞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교사 파송식을 마친 소감을 짧막하게 답하는 김 선교사. 그의 짧은 문장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이 물씬 풍겼다.



선교사파송패와 꽃다발을 받아 들고 인사하고 있는 김옥란선교사

언어와 문화의 벽도 만만치 않았다. 고 김충일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 부흥의 가로를 달리던 터라 바쁜 남편에게 재이민의 고통을 타놓을 수도 없었지만 날로 부흥되는 교회를 함께 바라보며 기쁨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회개혁 속에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교회 이전을 앞두고 동분서주 주야로 고심하며 ‘성전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도 더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 김충일 목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 2006년 현재 장소(1645 Beverly Bl)의 성전을 구입했다. 온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호탕하게 웃던 남편의 모습은 지금도 김옥란 선교사의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모습으로 자리매김 돼 있다. 이제 김옥란 사모는 선교사로 거듭 났고 남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정말 견디기 어려웠지요.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다시 찾아오셨고 아주 오래전부터 제 삶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조심스레 간증문을 내놓는 김 선교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뿐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기도를 당부했다. 다음은 김 선교사의 간증 요약문이다. (이성자 기자)

선교노숙



수단 기독교인들 독립은 했지만 무슬림 노예로 남아

지난 2011년 7월 9일은 남수단(South Sudan)이 독립을 한 날이다. 이로써 아프리카에서 가장 면적이 넓었던 수단은 북부의 수단과 남부의 남수단으로 분리됐다. 독립이 선포되고 수일 후에 남수단은 유엔의 193번째 가입국이 됐다. 그러나 남수단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남수단인의 해방은 완료되지 않았다. 수만의 남 수단 출신 주민들이 수단 북부에서 노예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 반노예 그룹(American Anti-Slavery Group)의 회장 찰스 제이콥스(Charles Jacobs) 박사는 남수단의 반정부 활동을 강화시킨 것은 북부 정권의 노예화였으며, 지난 50년 동안 남쪽의 흑인들은 북부 정권에 의해 억압과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이용당했다고 말했다. 북부 정권은 이슬람을 믿는 아랍계로 기독교와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믿는 남부인들을 상대로 아랍화와 이슬람화 작업을 펼쳐 왔으며, 이 와중에 약 3백만 명이 죽임을 당한 바 있다. 제이콥스 박사는 수단의 이슬람 정권은 노예제를 착취와 억압의 한 방편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북부 이슬람 정권의 지원을 받는 아랍 무장 단체 무라하린(Murahaleen)은 수십만 명의 흑인들을 잡아 노예로 만들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여자 아이들이다. 국제 기독교 단체들은 그동안 8만 명이 넘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한 국제 기독교 단체 대표는 북부 수단에 약 3만5천명의 노예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공개했다. 남수단이 독립되기 바로 전 주에도 404명의 노예가 해방됐다는 것이다.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는 수단의 인구가 4,320만 명이며, 전체 국민 중 이슬람을 믿는 이들은 61.4%에 해당하는 2,650만 명이고, 기독교인의 비율은 26.1%으로 1,127만 명이라고 기록했다.

나이지리아 교회, 박해 통해 오히려 성장

나이지리아 교회가 박해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현지 기독교 지도자가 전했다. 나이지리아교회협의회(CAN) 플라토 주 대표인 데이프 필립 음웰베시 목사는 최근 이 지역 대표 도시인 조스 시에서 열린 나이지리아침례교총회 중앙침례교컨퍼런스에서 연설 중, “교회에 대항하는 무슬림의 공격은 우리를 구원의 복음 전파에 있어 물러나게 만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플라토 주는 나이지리아에서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로, 작년 한 해만 해도 연초 무슬림들의 공격으로 기독교인 마을에 살고 있던 500여명이 대량학살되고, 성탄절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그룹인 보코하람의 테러로 기독교인 80여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음웰베시 목사는 “이같은 탄압을 우리는 오히려 성장하는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모임에서 새로 인수받은 17명의 목회자들에게 박해에 굴하지 않는 복음 전파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컨퍼런스에서는 현재 나이지리아 교회가 당면한 박해의 문제를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또다른 문제인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중앙침례교컨퍼런스 의장인 데이빗 오코로워 목사는 교회의 분열에 대해 비난하며, “교회는 악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서로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연합해 악을 부끄럽게 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 보다 불필요한 논쟁에 가담하고 있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는 북부에는 무슬림이, 남부에는 기독교인 인구가 지배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두 종교가 만나는 중부 지역에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어나는 기독교 박해 사례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간증문

지난시절 힘들게 치과 의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공부를 끝까지 다 마칠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공부 다 마칠 수 있게 해주셨고 늦었지만 평신도 선교사로 의료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남미로 이주

○...1965년 남미로 이주를 한 우리 동포들은 언어의 장벽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다시 국민학교 1학년에서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 2학년에 진급할 수 있었고 다음해엔 4학년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마친 후 여름 방학 동안에 공부하여 2학년 월간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3학년에 편입되어 공부를 했지만 4학년 때는 집에서 하는 일을 돕기 위해 1년을 쉬어야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월반을 하려고 맘을 먹고 공부를 해서 몇 과목은 시험을 치렀지만 월반에 패스하기까지 두 과목이 남아있을 때 어머니께서 병이 나셨습니다. 저는 병원을 다니며 통역을 해야 했습니다. 아직까지 2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시험날짜와 어머니 수술날짜가 겹쳐 시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되었고 3일 후에 학교

를 갔지만 시험을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그때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제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즐겁고 기뻐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무섭지 않았고 주님께서 손으로 아무런 것 주시는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일부러 천천히 온몸이 흠뻑 젖게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슬비가 내렸는데 주님께서 손으로 아무런 것 주시는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일부러 천천히 온몸이 흠뻑 젖게 걸었습니다. 미국으로 부르심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공부를 하며 대학교 졸업을 1년 앞두고 결혼하여 브라질로 남편을 따라 이주 하는 바람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5년 후에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편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저 또한 그때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저는 어린 자녀들이 넷이나 되었지만 치과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치과의사로 일을 할 때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기도하며 일을 하며 아르헨티나에서의 삶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국으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동안에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평안을 찾았습니다.

2년 후에 살던 집을 팔고 나니 10만 불이 남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많이 힘든 때였기에 그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수고한 보너스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2008년 12월 하나님은 남편을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남편과 기도한 것 ○...남편과 저는 함께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면 선교지에 가서 남편은 말씀과 주방장으로 섬기고 나는 치과 사역을 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이 다 헛것인 것 같은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았는지 회의도 들었고 절망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르헨티나 방문 중에 어느 선교사님의 말씀이 저를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과 합해서 돕겠으니 선교를 시작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길 기도하십시오”고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앞으로 평신도 선교사의 삶도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를 위해 온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핸드폰발거기세요 702.812.4770 Kim Wray. 국내 3.00 a day, 39¢ 공짜! 미국 어디나 무료 배달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생명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희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약정 후원 년수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리더십은 오직 영향력으로 결정된다!

국제제자훈련원, 존 맥스웰 목사의 '리더의 영향력' 원리 소개

진정한 리더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 듣는다. 리더십의 전문가 존 맥스웰 박사는 겉으로는 평범해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다.

리더십에 대한 오해를 버려라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해 종종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누군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조직의 책임자가 되면 리더라고 생각한다. 물론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조직의 책임자가 리더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리더십에 있어서 지위(position)란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리더십은 오직 영

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영향력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은 획득되어야 하는 것이다.

리더십에 관한 잘못된 인식

△리더십은 관리이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면, 관리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더는 기업가이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기업가들 모두가 사람 문제를 다루는데 유능한 것은 아니다.

△리더십은 지식이다: 머리가 좋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리더십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리더는 개척자이다: 또 다른 오해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 리더라는 생각이다.

△리더십은 지위이다: 스탠리 허프티(Stanley Huffty)는 이렇게 말했다.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지위를 만든다."

△리더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영향력이다.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남겼다.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숙녀(a lady)가 되는 것과 같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숙녀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은 이미 숙

△리더십은 권위이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면, 권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더십은 지식이다: 머리가 좋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리더십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리더십은 지위이다: 스탠리 허프티(Stanley Huffty)는 이렇게 말했다.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지위를 만든다."

△리더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영향력이다.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남겼다.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숙녀(a lady)가 되는 것과 같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숙녀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은 이미 숙

△리더십은 권위이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면, 권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더십은 지식이다: 머리가 좋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리더십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리더는 개척자이다: 또 다른 오해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 리더라는 생각이다.

△리더십은 지위이다: 스탠리 허프티(Stanley Huffty)는 이렇게 말했다.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지위를 만든다."

△리더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영향력이다.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남겼다.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숙녀(a lady)가 되는 것과 같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숙녀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은 이미 숙

△리더십은 권위이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면, 권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더십은 지식이다: 머리가 좋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리더십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리더는 개척자이다: 또 다른 오해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 리더라는 생각이다.

△리더십은 지위이다: 스탠리 허프티(Stanley Huffty)는 이렇게 말했다.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지위를 만든다."

△리더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영향력이다.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남겼다.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숙녀(a lady)가 되는 것과 같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숙녀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은 이미 숙

△리더십은 권위이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면, 권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더십은 지식이다: 머리가 좋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리더십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리더는 개척자이다: 또 다른 오해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 리더라는 생각이다.

△리더십은 지위이다: 스탠리 허프티(Stanley Huffty)는 이렇게 말했다.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지위를 만든다."

△리더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리더는 개척자이다: 또 다른 오해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 리더라는 생각이다.

△리더십은 지위이다: 스탠리 허프티(Stanley Huffty)는 이렇게 말했다.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지위를 만든다."

△리더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영향력이다.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남겼다.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숙녀(a lady)가 되는 것과 같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숙녀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은 이미 숙

△리더십은 권위이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면, 권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더십은 지식이다: 머리가 좋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리더십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리더는 개척자이다: 또 다른 오해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 리더라는 생각이다.

△리더십은 지위이다: 스탠리 허프티(Stanley Huffty)는 이렇게 말했다.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지위를 만든다."

△리더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영향력이다.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남겼다.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숙녀(a lady)가 되는 것과 같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숙녀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은 이미 숙

△리더십은 권위이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면, 권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더십은 지식이다: 머리가 좋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리더십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리더는 개척자이다: 또 다른 오해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 리더라는 생각이다.

△리더십은 지위이다: 스탠리 허프티(Stanley Huffty)는 이렇게 말했다.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지위를 만든다."

△리더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영향력이다.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남겼다.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숙녀(a lady)가 되는 것과 같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숙녀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은 이미 숙

△리더십은 권위이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면, 권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더십은 지식이다: 머리가 좋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리더십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리더는 개척자이다: 또 다른 오해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 리더라는 생각이다.

△리더십은 지위이다: 스탠리 허프티(Stanley Huffty)는 이렇게 말했다.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지위를 만든다."

△리더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영향력이다.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남겼다.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숙녀(a lady)가 되는 것과 같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숙녀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은 이미 숙

△리더십은 권위이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면, 권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더십은 지식이다: 머리가 좋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리더십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리더는 개척자이다: 또 다른 오해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 리더라는 생각이다.

△리더십은 지위이다: 스탠리 허프티(Stanley Huffty)는 이렇게 말했다.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지위를 만든다."

△리더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영향력이다.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남겼다.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숙녀(a lady)가 되는 것과 같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숙녀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은 이미 숙

△리더십은 권위이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면, 권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더십은 지식이다: 머리가 좋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리더십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리더는 개척자이다: 또 다른 오해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 리더라는 생각이다.

△리더십은 지위이다: 스탠리 허프티(Stanley Huffty)는 이렇게 말했다.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지위를 만든다."

△리더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대흥교회)

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계22:1-5)

4절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전 13:12)는 의미입니다. 또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전인격적인 하나님과 연합됨을 말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숨은 이후로 그 지손된 자 인간들은 누구

화 말씀을 지키는 자 (계22:6-8)

7절, 임박한 주님의 재림선포와 함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계시록에 선포된 일곱 번의 축복선포 가운데 여섯 번째 선포로 첫 번째 선포내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아는 것뿐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행하

수 긴박한 마지막 때 (계22:9-11)

11절,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도 그대로 두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최악의 길로 가는 자들을 그대로 방치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각 사람을 돌아치게 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급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며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목 믿음의 열매 (계22:12-13)

주님께서는 다시 속히 있을 재림을 강조하시며 동시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12절)고 말합니다. 물론 이는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의 행위란 믿음을 포함한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각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판단기준이 바로 삶과 행위가 아니라, 따

금 두루마기를 바는 자 (계22:14-17)

14절, 사도 요한은 생명나무에 나아가 권세를 얻기 위해 자신의 두루마기를 바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동사가 현재시제로 돼 있습니다. 이는 곧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단번에 이뤄지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최악으로 가득찬 이 세상을

토 마라나타 (계22:18-21)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20절)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최후의 말씀이요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나 임박한 사건입니다. 이 날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그 날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폐조조차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창33:20-23).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당당히 하나님을 보고 섬기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기를 바랍니다.

려면 먼저 아는 일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단지 피상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더욱 정확하고 바르게 알도록 힘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맺지 못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써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성급도 넘치게 받는 복된 종들이 돼야겠습니다.

가를 분명히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영혼이 반드시 분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항상 잊지 마시고, 부르실 때 지체없이 천국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서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거품을 빼고 솔직하게 과언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철저하게 말씀과 진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히 여건을 받지 아니하시나니..상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6:7, 8).

살아가면서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죄에 오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정결을 목욕으로 비유하면서 이미 깨끗해진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요13:10). 날마다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함으로써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그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날엔 우리의 모든 원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뜨거운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서 땅 끝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성도되기를 바랍니다.

국제CCC 이름 변경에 후원 멈춰

Christ는 삭제되고 삭제한다던 Crusade는 강조돼

국제 CCC가 최근 이름을 Cru로 변경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CCC의 조력자들이 후원을 멈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CC측은 Campus Crusade for Christ라는 자신들의 이름에서 Campus와 Crusade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명칭 변경이 최대 이슈라고 밝히고 있지만 후원자들은 Christ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에 상당한 섭섭함과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CCC측에서 말하는 이름 변경의 핵

심은 Crusade와 Campus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일어난 십자군 운동을 지칭하는 Crusade가 세계의 많은 지역, 특히 중동권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 내 선교학계에서조차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단어란 점이다. Campus란 단어 역시 현재 대학 캠퍼스를 넘어 출판 사역, 미디어 사역, 가정 사역, 내륙 선교 사역으로까지 확대된 CCC의 사역 범위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CCC측의 이 주장은 후원자

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에는 아직 거리감이 커 보인다. CCC가 이름 변경의 초점이 Crusade와 Campus라고 주장하지만, 후원자들은 이 두 단어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기 때문이다. 두 단어의 삭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왜 Christ를 뺐느냐고 묻고 있다. 기독교 선교단체가 60년 동안 갖고 있던 Christ라는 이름을 빼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CCC는 Cru 로고에 십자가 이미지가 들어 있다고 답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 Crusade라는 단어를 문제시해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Cru라는 새 이름이 여전히 Crusade의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게다가 Cru라는 단

어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무의미한 단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원자들은 Crusade와 Campus를 없애려다 Christ만 없어지고 오히려 Crusade는 강조된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후원자 이탈 현상에 대해 CCC의 언론담당자 마크 아담스 씨는 "아주 적은 수만이 후원을 중지하고 있다"고 미국 교계 언론사인 크리스천포스트에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동주 의자 존 파이퍼도 "이름을 보지 말고 그들이 하는 사역을 보라"고 호소했다. 그는 "내가 볼 때, CCC는 과거에 비해 더욱 깨어있는 건강한 단체가 되어가고 있다. 단지 이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후원을 멈추지 말라"고 말했다.

새 이름은 2012년부터 국제CCC와 미국CCC가 사용하게 된다. 현재 CCC는 국가별로 독립돼 있기에 Cru라는 이름을 도입하고 말고는 각 나라의 자유다. CCC 관계자는 이미 95% 가량의 국가에서 새 이름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우리가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기도운동은 영혼구원의 역사의 필연적인 준비 작업이다. 항상 영혼구원의 역사 이전에 기도의 준비가 있었다. 또한 모든 무슬림이 다 근본주의자들이고 극단적인 파괴론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어 있다. 우리의 기도는 무슬림 나라들 안에 있는 교회들과 영적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슬람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개혁운동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15억의 무슬림이 한꺼번에 라마단 기도를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다면 이는 진실로 통탄할 일이다. 깨어나서 그리고 무슬림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p>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저녁 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군포동 870-10</p>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 (131-231)</p>	<p>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철 www.gimpo.org Tel: (82)31-984-293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64번지</p>	<p>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주광역시 북구 문정동 936-1번지</p>	<p>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Tel: (031)977-8389~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E-3E 00175 ROMA, Italy</p>
<p>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Tel: (604)584-5780, Fax: (604)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p>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Tel: (02)2645-6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영등포구 목동동 622-3 (158-053)</p>	<p>새이성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 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82)2-2646-3181~3, Tel: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동 520 (158-80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82)2-998-98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Tel: (82)2-2643-8553~4, Fax: 2647-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63-2</p>
<p>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정필도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8-1, (612-824)</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2-849-9191, 사해(82)2-844-1571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 663-11</p>	<p>승중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2341~3, 사해(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구 인사동 137 번지</p>	<p>시온성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용인시 영통구 이화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Tel: (82)2-842-1968, 사해(011)82-2-842-1968 서울영등포구 신길동 520 (158-051)</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Tel: (82)2-796-6579, 사해(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동 49-45</p>	<p>안양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Tel: (011)82-2-927-5511 서울 송파구 재계동 228-146-7</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86-4710~4, Fax: (055)286-3494 (641-370) 경남 창원시 인촌동 20-3</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연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84-10(4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홍도 Tel: (82)2-482-2160,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p>	<p>청주주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 FAX: (043)274-8114 361-6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박준순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인/터/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김영욱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총장

ACTS, 5년 위기 딛고 정상화 ... 재도약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 없지요.” 지난 5년간 교내 내용으로 존폐 위기까지 갔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이하 ACTS)가 지난 3월 김영욱 목사 총장취임을 계기로 재도약의 길에 들어섰다.

취임 후 첫 해외나들이로 뉴욕을 방문한 김 총장은 뉴욕목회자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다 넘어갈 것 같은 학교가 다시 정상화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ACTS가 출발부터 미주한인교회들의 후원으로 시작된 만큼 학교 정상화의 소식을 가장 먼저 미주에 알리고 싶었다”며 한인교회들의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다.

김 총장은 “초대총장 립택권 목사님과 장영춘 목사님과의 친분으로 장 목사님께서 설립부터 많은 후원을 해주셨다”고 회고했다.

김 총장은 ACTS가 지금도 국내외 240 교회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학교를 소개했다.

“37년전 개교한 ACTS는 제 3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신학의 정체성은 신본주의 복음주의 신학위에서 선교에 목표를 두고 아시아와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지도자를 양성해서 한국교회에 리더가 되도록 하는 것과 물론 선교사로 선교현장에 내보내는 것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들 특히 제3세계 학생들을 가르쳐 졸업 후 고향에 돌아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부터 시작된 학교이고 영어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5년 전부터 시작된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가 정체됐고 그러한 특성들이 모두 사라졌지요.

제가 취임하고 학교가 이제 본궤도를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다시 외국학생들도 모집하고 특히 한인 1.5세나 2세대들이 부모의 나라에 와서 공부하면 한국교



왼쪽부터 김옥희 사모, 김영욱 총장, 원종천 국제교육원장

회와 한국교회 문화를 알게 되기 때문에 트민스터신학교에서 했다. 또 이한영 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에는 무처장도 브라질 이민자 출신. 이번 가을

명이 재학 중이지만 5년 전에는 7-80명 정도가 재학했었다. 물론 외국인들은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총장임기 동안 구체적인 비전을 소개한다면?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평생교육원의 확장이다. 비학위과정으로 현재 재학생이 250명 정도 된다. 나이 상관없이 전문직으로 면허증 필요한 직종과 목회자 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 학교교수진은 초교파로 모두 실력 있는 탑 클래스들이다. 정교수 30명, 강사 50여명이 강의하고 있는데 이들이 평생교육원 교육도 한다.

또 하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MK(선교사자녀)학교이다. 선교사들이 귀국하면 언어적으로 불편한 자녀들이 갈 학교가 없다. 그런데 한국교육법이 까다로우 별도의 재단이 필요하다. 대안학교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구

다. 목사안수 받았으면 한 우물을 파야한다.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딴 생각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된다. 교인숫자 생각 말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항상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 뜻에 따라 나가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나를 내세우면 문제가 생긴다.

한 가지, 즉 목회에 미치면 된다.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전공분야에 미쳐야 한다. 번역의 신학과 타협하면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진짜 교수가 되기는 어렵다. 우리학교 교수들도 지난 2-3년 동안 무보수로 있으면서 자리를 지켰다. 열심히 하다가 보면 기적도 일어난다. 우리 학교가 그것을 증거 한다.

교수나 목회나 다 사역이다. 다 힘들다. 학교도 생존하기 위해 국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에서만 경쟁이 아니라 세계에서 경쟁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교회도 성장한다.

*김영욱 총장은 1972년 미국개혁교단(CRC)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여년 간 캘리포니아 주 가든그로브장로교회를 맡았으며, ACTS에서 실천신학 교수와 북한 선교연구소장, 평생교육원 운영처장, 법안국장 서리, 총장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또 세계 오지와 낙도에 수륙양용 경비행기로 복음을 전하는 '항공선교'의 새 지평을 열기도 했다. 김옥희 사모와의 사이에 1남2녀가 있다.

〈유원정 기자〉

[정정: 지난 호 제16면 김애자 피아니스트 인터뷰 기사 중 이운영 목사(나성한미교회)를 (한미장로교회)로 정정합니다.]

평생교육원 강화·선교사자녀학교 개교 비전 세워

한국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선교지에도 갈 수 있으며 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역하게 될 때 한국교회의 후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남미 호주의 2세대들을 교육시켜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 한국 내 사역과 선교지, 이민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교육원(원장 원종천 박사)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 원종천 목사 자신도 1.5세로 유편을 졸업하고 신학은 웨스

학기부터는 외국인 교수들도 강의를 맡게 된다.)

다음은 김 총장과의 일문일답.

-ACTS 재학생들의 구성은? 현재는 학부 850여 명, 대학원 400여 명이다. 원래는 대학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대학원생이 많다. 정원은 학부와 대학원 각각 850명씩인데 대학원이 많이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리라고 예상한다. 외국학생들도 이번 학기에는 22

성해 준비하고 있다

-미주에서 20여년 목회경험이 있으신데 후배 미주목회자들에게 조언해주신다면?

지금은 다 훌륭하다. 학교도 그렇지만 목회도 자기가 하려고 안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실망하지 말고 정진해야 한다. 늘 후배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한다. 목사안수 받고 딴 직업을 갖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

러시아 천사 합창단을 초청해 주신 여러 교회에 드리는 감사의 말씀

러시아 선교 20주년 기념 동남부 지역 미국순회 공연에 저희 러시아 천사 합창단을 초청하여 주시고 환대해 주신 32 교회와 러시아 선교를 위해 헌금해 주시고 또 합창단원들을 가정으로 초청하셔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1년 지금으로부터 만 20십년 전, 그 당시 16세-20세의 소녀들과 11세-16세의 어린이들로 천사 합창단을 각각 설립하여 성경과 찬송과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쳐서 천사합창단을 통해서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음악회를 통하여 수많은 청중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서 오늘날 러시아 선교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선교의 문도 열게 할 수 있었고 오늘의 세계적인 천사합창단으로 성장되어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전도음악회를 가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교포교회는 물론 수많은 미국인교회와 특히 로버트 솔러 목사가 시무하는 수정교회와 예일대학의 초청으로 음악회를 가진바 있으며 오직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합창단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 그 당시 소녀 단원들이 이제 모두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고 가정을 갖고 어머니들이 되어 더 이상 세계 순회 전도음악회에 동참 할 수 없게 되어 이번 공연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 공연에 방문했던 교회마다 너무 좋은 호응을 받게 되었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합창단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격려를 받게 되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73세가 되어버린 내 나이로 제 2의 천사합창단을 재 조직 해야 할 것인지도 할 수 있을 것인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선교사 (러시아천사 합창단) 김바울 목사 드림

2011년 7월에 순회한 교회

- 7월 1일(금) 세계남민구호재단 (이사장 손영구 목사님)
- 2일(토) 뉴욕 만국교회(김희복 목사님)
- 3일(주일) 목양장로교회(송병기 목사님)
- 4일(월) 뉴욕 그루터기장로교회(김의승 목사님)
- 5일(화) 헤리스버그 한인제일장로교회(김현국 목사님)
- 6일(수) 버팔로 한인연합감리교회(지영재 목사님)
- 7일(목) 피츠버그 한인교회(조영선 목사님)
- 8일(금) 앤아버 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목사님)
- 9일(토) 시카고 노스웨스트장로교회(김성득 목사님)
- 10일(주일)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목사님)
- 11시 시카고 아카데미장로교회(신광해 목사님)
- 오후 3시 헤브론교회(김선중 목사님)
- 11일(월) 시카고 러시아 천사합창단 후원회(회장 신홍식 장로님)
- 12일(화) 신시내티 한인침례교회(이원원 목사님)
- 13일(수) 내쉬빌 연합침례교회(이행보 목사님)
- 14일(목) 알라바마 버밍햄한인침례 교회(장영득 목사님)
- 15일(금) 후롤리다 포트윌턴교회(이홍식 목사님)
- 16일(토) 케인스빌 한인침례교회(손민석 목사님)
- 17일(주일) 오칼라 한인장로교회(김삼 목사님)
- 18일(월),19일(화) 올랜도 아르다교회(염준용 목사님)
- 20일(수) 잭슨빌 제일장로교회(이운복 목사님)
- 21일(목) 하인스빌 한인침례교회(이명훈 목사님)
- 22일(금) 아틀란타 실로암한인교회(신윤일 목사님)
- 23일(토) 한버전 애틀랜타교회(이요셉 목사님)
- 24일(주일) 11시 아틀란타 인디옥교회(허연행 목사님)
- 오후 2시 새한장로교회(송상철 목사님)
- 오후 6시 주님의영광교회(이홍식 목사님)
- 25일(월) 샬롯 한인 제일장로교회(나성근 목사님)
- 26일(화) 팔리 한인장로교회(조문길 목사님)
- 27일(수) 28일(목) 페닌슐라 영광장로교회(황영선 목사님)
- 29일(금) 워싱턴 세계선교회(김석현 목사님) (장로 성가단 협찬)
- 30일(토) 워싱턴 새한장로교회(장재윤 목사님)
- 31일(주일) 오전 9시 11시 워싱턴 온누리 드림교회(이근호 목사님)
- 오후 7시 볼티모어교회(이영섭 목사님)

8월 1일 모스크바로 귀국